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 Ronni Abergel  
초청 강연 및 관계자 심포지엄



##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 초청 강연 및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

### 차 례

- 03 인사말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 05 황창희 국회도서관 관장
- 07 윤석민 희망제작소 소장
- 09 강 연 표지만으로 책을 평가하지 마세요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 이해하기
- 35 사례1 국내 최초 공공기관에서의 상설 운영 노원휴먼라이브러리
- 69 사례2 공감의 소통과 관계를 회복하는 마을도서관 숨쉬는도서관
- 85 사례3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 105 정 리 일상 시민교육 방법론으로서 휴먼라이브러리 재조명

## 휴먼라이브러리의 현실, 그리고 가능성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 관장

강남의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탕자가 되듯, 덴마크에서 시작된 휴먼라이브러리도 한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이론의 소개가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 단계에 들어서면 당연히 토양과의 조응, 현실적합성,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창조성까지 결들여지게 되어 언뜻 ‘굴’과는 거리가 있는 듯한 형상을 띠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변질이나 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간헐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햇수로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시행 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주 되고 있고 한편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한번쯤 국내에서의 실행 과정을 돌아보며 재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처음 창안한 로니 애버겔 씨의 생각과 기획의도,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한국적 상황에 대한 바람 등을 직접 육성으로 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미술 시간에 사용하던 크레파스 종류 중에는 ‘살색’이라고 명명된 것이 있었고 저도 그리고 선생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살색’을 ‘살구색’으로 명칭을 바꾸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색’이 국가 표준으로 당당히 대접받고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살풍경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 기인합니다. 그렇기에

제도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개인의 편견만 책망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그러나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것은 시스템 스스로의 자정 작용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작동한 결과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강고한 제도를 두고 사람만 탓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노력을 회피하는 면피용으로 차용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니 애버겔 씨는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유력한 방도로 휴먼라이브러리를 고안해 냈습니다만 편견을 극복하는 유일 혹은 유력한 방도가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한정지을 수도 없고 또한 휴먼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편견 극복의 매개로서만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세 기관의 경험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의 현황과 고민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보는 것도 새로운 자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경우 보름 전에 사전 접수가 마감되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휴먼라이브러리를 그냥 알고 싶어서 라기 보다는 ‘새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일 것이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이해의 폭을 넓힘은 물론 관심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 시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휴먼라이브러리, 소통과 공감의 광장



황창화 국회도서관 관장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황창화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Human Library Korea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특히, 멀리 덴마크에서 오신 로니 애버겔 씨와 휴먼 북과 대출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휴먼라이브러리를 처음 접했던 것은 불과 2, 3년 전이었습니다. ‘아! 이런 도서관도 있을 수 있구나. 사람을 대출해 주는 도서관이라니.’ 정말 신선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침 국회도서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휴먼 라이브러리를 도서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란 국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소통되고 수렴되는 광장이어야 한다는 바람 때문이었고, 휴먼라이브러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와 정책을 소통시키고, 국민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시켜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휴먼 북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국회 내의 입법 관련 전문가, 각계의 정책전문가 등이 우선 등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휴먼 북 등재 공모

등의 방법으로 보다 폭넓은 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들과 소통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출방식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소통방식과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세계 최초로 국가도서관 차원의 가장 큰 휴먼라이브러리의 탄생을 꿈꿔봅니다. 이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상도 해봅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딛는 사업을 두고 저 혼자 너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행사를 통하여 국회도서관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도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단순하고 자유로운 사회혁신 방안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2013년 6월, 희망제작소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최고지도자들을 인솔하여 평생교육 혁신사례를 탐방하기 위해 덴마크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그엘(Ronni Abergel)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직접 책이 되어 대출되는 도서관인 휴먼라이브러리는 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 한국에도 소개되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현장에서 직접 본 휴먼라이브러리는 단순하면서도 자유롭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혁신적이고 뛰어난 민주주의의 학습도구였습니다. 편견의 대상을 직접 만나보고 오해를 해소하는 이 방법은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OECD 27개 회원국 중 사회갈등지수 2위, 사회적 자본 지수 22위, 연간 사회갈등 해결비용 300조,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갈등을 일상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휴먼라이브러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휴먼라이브러리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할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갈등을 줄이려 노력하는 모든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초청강연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 이해하기  
**표지만으로 책을 평가하지 마세요**





##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 이해하기 표지만으로 책을 평가하지 마세요

로니 애버그겔(Ronni Abergel)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니 놀랍고 기쁩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음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아니라 휴먼라이브러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저는 휴먼라이브러리 설립자 중 한 명입니다. 또한, ‘휴먼라이브러리 오가니제이션(The Human Library Organization)’이라는 단체의 CEO이자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오가니제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홍보하고 행사가 취지에 맞게 열리도록 지원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와 노르딕 미니스터 카운슬(The Nordic Minister Councils)에서 발행한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Guideline to Organizers of the Human Library)>를 집필했습니다. 또한 서던 덴마크 대학(The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에서 저널리즘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놀라운 지역을 방문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때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냅니다. 제가 자라난 곳이고 현재,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작년에 갑작스럽게 제 오랜 파트너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이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휴먼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공통점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저와 제 친구들이 2000년 2월에 함께 모여 앉았던 이유와 같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스탑 더 바이올런스(Stop The Violence, 폭력을 멈추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죠. 그때 휴먼라이브러리라는 아이디어와 방법론이 처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 직장 동료,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에 꺼끄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을 알고 싶은 그런 주제들 말입니다.

결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마주 앉아 일상적인 주제가 아닌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오해, 편견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아니, 상대방을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형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은 전 세계적으로 중립적인 정보 센터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고, 궁금한 정보나 자료를 찾는 공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라는 형식이 가장 알맞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뭔가 불만이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눴다면 서로 차이가 해소되거나 새로운 시각 혹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휴먼라이브러리라는 새로운 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기존 도서관과는 달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 도서관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들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 대학, 컨퍼런스, 직장, 도서관 등 진행 장소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대화 공간에 대한 요구는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전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양성 이슈가 점점 중요해져 가고,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증가는 해당 지역 사회에 강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시각이 확장될수록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단, 개인의 다양성이 모여서 지역 전체의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대화와 열린 마음을 통해서만, 오래된 관습적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꼬리표를 떼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이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휴먼라이브러리가 좀 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배를 6번이나 칼로 찔리는 일이 없었더라면, 저와 제 친구들은 ‘스탑 더 바이올런스’를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활동을 통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겪은 폭력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테고, 전쟁을 딛고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낸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언젠가는 휴먼라이브러리가 남북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가 실수로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가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나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었죠.

저는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힘과 전 세계에 적용 가능성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지구상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위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눌 일은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휴먼라이브러리입니다. 이들은 휴먼라이브러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자신의 종교,

사회적 지위나 배경, 직업, 교육, 성 정체성,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많은 편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곤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편견들에 도전해 보고 싶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매우 제한된 정보만으로 사람들을 유형화하는 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이미 저를 판단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 선 지 몇 분 만에 말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이나 통찰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뭔가 잃을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선부른 판단 정도가 아닐까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한국인에 대한 몇 가지 인상이나, 한국인에 대해 들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가지게 된 생각들이죠.

제가 한국인에 대해 가지게 된 첫 번째 부정적 인상은 스파이크 리(Spike Lee) 감독의 1989년 영화 ‘똑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를 통해서였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동네인 베드스투이(Bed-Stuy) 지역의 길모퉁이에 3명이 술에 취해 앉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건너편 야채가게를 바라봅니다. 야채가게 앞에서 한국인이 사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그 지역 흑인들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상점 모두를 흑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한국인에 대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미국에 온지 고작 2주밖에 안된 한국인들이 이곳 흑인 지역에서 가게를 열고 있다며 경멸스러운 어투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서유럽 국가의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 하나는 이민자들이 수동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추진력이나 일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헌신, 이민 사회에 대한 기여는 분명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는 제게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게 했습니다. 한국인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하루도 빠지

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인상입니다.

이제 한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내용도 있을 테고, 인정할만한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단,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한국인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얘기한다.”

“한국인은 폐쇄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외부인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인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과 융합되기를 원치 않는다.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인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 심하게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들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인은 자신이나 자녀들이 항상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채찍질한다. 과도할 정도로 야심이 넘치며 진지하고, 긴장한 채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 내용은 한국에서 1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던 한 교육자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기사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는 기사에서 한국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른 아침, 수업 전에 학교를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늦은 밤에 그저 잠을 자기 위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엔 똑같은 일과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한국 아이들에게는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처럼 굴거나 그 시기를 즐길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30년 후 덴마크에서 우리는 어떤 직장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뒤쳐지고, 똑똑함에 있어서도 뒤쳐질 뿐 아니라 일주일에 아주 편하게 37시간을 일하는 현재와는 달리 그 때가 되면 50~60시간을 일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 대한 저의 마지막 고정관념은 직장과 교육이 이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위상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직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직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할 일을 잘 해냈지만 조직의 요구가 변했거나 조직이 제가 한 일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도 많이 실망했고 제자신이 실패자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제가 실패자가 아니라, 부실한 조직 경영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한국인은 직장을 잃고 난 후 집에 돌아가 자살을 할 수도 있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그냥 직장일 뿐이다, 일은 또 나가서 구하면 된다,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어떻게 내가 모든 일자리에 꼭 맞는 사람이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국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이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학벌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의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특징은 특별히 한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어떤 위계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지위가 학벌이나 직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학벌이나 직업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한 사람이 표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한국인에 대한 저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중 과연 몇 가지나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확인해 볼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접근방법이 휴먼라이브러리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직접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대면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동시에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휴먼라이브러리 개최와 관련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누군가가 교육수준, 인종이나 민족, 종교, 생활방식 등으로 인해 비난 받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가?”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체결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타이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판단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분열되고 갈등은 더 고조되고 너와 나 사이의 차이는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화합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화합할 수 없다면 사회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우리 모두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저의 모국인 덴마크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는 매우 작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서부터, 레고(LEGO) 블록, 아마도 세계 최고의 맥주라 할 수 있는 칼스버그까지 덴마크인은 그들의 발명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무역, 판매, 운송(머스크<MAERSK>라는 회사도 잊어서는 안 되죠.) 등이 유명하죠.

매년 진행되는 국가 행복도 조사에서 덴마크는 오랫동안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마치 덴마크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 중에 이 결과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조사에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금융위기와 불황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절망과 체념이 표면 아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실업자들을 쥐어짜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여 극단적이 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들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덴마크 젊은이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머니 속에 값비싼 삼성 스마트폰이나 애플 아이폰을 넣고 다니기 때문이죠. 이들은 길거리에서 극단적인 사람들, 종종 소외지역이나 불우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강도 행위에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현재 덴마크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단지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신 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사이에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딸의 아이폰이나 값나갈만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밖에 나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매일 걱정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강도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을 생각할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덴마크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회 화합을 이루어내어 그 누구도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기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코네티컷 주의 밀퍼드라는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최근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던 미들타운이라는 곳에서 1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러한 총기난사 사건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징후를 보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LA 타임즈에서 읽었던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자신이 신고 있던 150달러짜리 새 나이키 운동화를 뺏으려는 강도에게 저항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작 스마트폰이나 운동화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서있는 것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기본 원칙과 기준만 이해한다면 간단합니다.

먼저 행사가 열릴 해당 지역 사회에 어떠한 편견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편견을 대표해 독자와 만나게 될 사람, 즉 ‘사람책(Human Book)’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장소와 운영 시간, 대출 시간 등을 결정하고 홍보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공간에서 사람책 대출이 이루어지고, 독자와 사람책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와 협력하면서 행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원칙은 간단합니다. 바로 행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사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거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이 행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한 행사여야만 합니다. 그럴만한 용기가 없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한 순간이라도 독자들이 자신의 편견에 도전할만한 용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 독자들을, 그들의 의지를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몇몇 단체들은 휴먼라이브러리가 해당 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괴물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 때문에 저와 제 동료들은 괴물 소탕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러한 일에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정말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 목적을 혼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한 단체가 휴먼라이브러리 콘셉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는 정신 질환 이외에 다른 편견을 행사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숙인과 관련된 사람책만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자들에게 거의 어떠한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의미를 특정 이익 집단의 선전이나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어떤 편견에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우리는 괴물 같은 행사라고 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라는 이름 하에서 이러한 행사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괴물 행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소속된 작은 집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단체나 사람들의 행사들이었죠. 괴물 행사 중에는 특히나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NGO는 LGBT에 대한 불관용 이슈를 다루기 위해 휴먼라이브러리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LGBT에 대한 편견은 충분히 도전 받아야 할 이슈이지만, 사람책을 LGBT로만 채운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자극이나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극우주의자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극우주의자들은 사람책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LGBT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게이 한 명과 레즈비언 한 명을 다른 편견을 대표하는 사람책 15명 정도와 섞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실현 가능성

이 높은 접근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자극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괴물이 아닌 진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극우주의자와 같은 사람들과 얽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반드시 괴물 같은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러시아 보로네시라는 지역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 단체는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이해 증진을 위해 지역 북 카페 겸 도서관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와 사람책에게 후추가루를 뿌려대는 한 젊은 극단주의자의 방해로 받았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경찰이 와서 곧바로 그를 체포해갔기 때문에 그에게 관용이나 이해를 베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시아는 특히나 LGBT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곳이라서 휴먼라이브러리 같은 행사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했다면, 거리를 걷다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가 과연 이런 모습일까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숨겨야만 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휴먼라이브러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비난이나 편견,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과 이해를 증진시켜서 갈등이나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휴먼라이브러리의 미션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미션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존재하도록 조종당하고 억압받는 세상이 아니라, 개인들의 소중하고 놀라운 개성과 다양성이 풍성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관용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미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대학으로, 조그만 동네에서 큰 도시로, 단일 국가에서 대륙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먼라이브러리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덴마크에서 시작한 휴먼라이브러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며 헝가리, 노르웨이, 포르투갈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현재 60개국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가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7대륙 전체에서 휴먼라이브러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휴먼라이브러리라는 형식을 원하긴 하지만 다양성 추구라는 휴먼라이브러리 원칙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나 존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책은 스토리텔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해당 편견에 대해 독자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원래 취지 그대로 행사가 개최되어, 한국 사회에 휴먼라이브러리의 진정한 잠재력과 영향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제대로 구현해낼 용기도 없는 단체가 단지 홍보나 마케팅에 급급해 행사를 진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지역의 리더로서, 이러한 미션을 수행해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 휴먼라이브러리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사람책, 즉 전 세계 공통적인 편견도 분명 존재하지만, 많은 편견들이 그 내용에 있어 각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사를 개최할 때 각 지역의 문화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진행되는 휴먼라이브러리의 운영자들 대부분은 모든 사람책에게 스톱워치를 제공해 제 시간에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사람사전, 즉 통역관을 준비해 언어가 다른 사람책과 독자의 대화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모든 휴먼라이브러리에는 훌륭한 사람책과 훌륭한 운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중립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휴먼라이브러리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인된 파트너 단체에 의해 열리는 휴먼라이브러리는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트너이자 이번 행사를 개최한 국회도서관, 희망제작소 그리고 수원시평생학습관에 고마움을 전하며 제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와 희망제작소는, 희망제작소가 휴먼라이브러리 한국 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서로 합의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한국에서 열리는 휴먼라이브러리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물 같은 행사가 출현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강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희망제작소를 통해 공식 파트너로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길 바라며,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How the Human Library can help build understanding for diversity

"Welcome, its great and amazing to see so many people here today."

Although I would love to think that you are here because of me! I understand, well and appreciate, that it is the idea and concept of the Human Library that has brought you all out on this winter cold day in Seoul, thank you for coming and joining us here.

But let's get right to it- as you heard I one of the inventors of the Human Library. I am also the CEO & Founder of the Human Library Organization, a unit that operates all across the world to promote and quality ensure Human Library events. And I am the author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Nordic Minister Councils "Guide to Organizers of the Human Library". I have a degree in Journalism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and when I am not visiting amazing countries and meeting new people. I live in Copenhagen, Denmark, the city where I grew up and now reside with my two children. Last year I unfortunately and every unexpected became a widower, as my partner and the mother of the children passed away suddenly.

But let's get started with primary reason why we are all here. The Human Library... To know, understand and learn more about the Human Library and how this concept and methodology can aid civil society in closing the gaps between people, who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still have a lot more in common than what is keeping them apart.

That is one of the primary reasons why me and my colleagues at the Danish Stop The Violence Movement sat down in February 2000 and developed the idea and methodology behind the Human Library, which has now been introduced in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created the Human Library simply because we wanted to offer an opportunity for dialogue on difficult issues. Things you cannot talk about on the street or in the work place or with friends. But rather issues that concern us, issues we would like to know the answers to.

To create a safe space where people who might otherwise never meet, could sit down and talk on a topic out of the daily range and more specific, issues where we recognize our own stereotypes, misconceptions and prejudices. A place for understanding or at least learning about the difficult other.

We clearly felt that in order to keep this dialogue space neutral, then we would have to create a framework similar to a library, as libraries worldwide are considered neutral information centers. A place to seek out facts, a place to learn, in short, the place to find the information we seek.

Our thought was if we could get people, who think they don't like each other "type" or who recognize that they have "issues" with some groups of people, to sit down and talk about those issues, then differences might be resolved, or new perspective may be offered to the reader as well as new insight for the book. Paving the way for a new understanding of each other, based on insight, knowledge and a personal meeting between people.

A Human Library was born offering information like no other library before it. Today this information is offered at different frequencies in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schools, colleges, universities, conferences, work places, libraries and much more.

You see there is a need for this space on a global level. As our societies are changing and the world is becoming smaller, we all experience how our communities are also looking different. The diversity of the world has become more apparent and increased mobility has seen many countries experience immigration of alien work force.

Diversity can and should be a strength to a community. The broader our knowledge, competences and insight is, the more challenging tasks will we be

able to solve together. But only if we manage to utilize the diversity to the common benefit of the entire community and society as a whole.

We created the Human Library because we thought it could change the way people view each other. Even more we believed that it could get people talking with each other, rather than about each other. Only through dialogue and open minds, can we begin to take advantage of the diversity and leave behind the stigma of old fashioned perceptions and general misconceptions.

We did it because we think it can help build a more peaceful society for all people. And because we saw that this Human Rights orientated methodology has an endless potential for doing good in the community.

But somehow I got involved in all this by fate I guess. If a friend of ours had not been stabbed six times in the stomach while out on the town in Copenhagen. We would most likely never have started the Danish Stop The Violence Association. And it was during this work we became wise to the dynamics of violence and the correlation with prejudices and stereotypes. Thus we would have never invented the Human Library and I might never have made my first visit to this amazing country that has lifted itself out of post conflict and into prosperity. Only thing missing seems to be political stability in the region. I would hope one day, the Human Library could also aid you in rebuilding relations, once the region becomes a post conflict area.

So you could say I became an activist for social change by mistake and well there are worse things in life I could have become...

I quickly realized not only the power of the concept but the potential for global implementation. You see there are no thinking people on this planet, that do not have stereotypes and prejudices. It is simply a part of human nature and an integral part of the way we navigate diversity. Everyone applies labels to others, to people we do not know, people we are different from, people who live life different or believe in something different.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Human Library offers access to. The people we

normally might talk about, but typically would not talk with. People who have volunteered to share their life experiences under a given topic that relates to their life situation, condition or framework. Most ofte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or suffered from stigma, stereotypes or prejudices. Some also victims of discrimination based solely on their religion, social status, background, occupation, education, sexuality or ethnicity.

It was my realization that I myself had a lot of prejudices about people I did not know and that they were based on information that was unconfirmed, that got me on track for the idea. I realized that I might be one of many that would be willing to challenge my own prejudices, to see if what I was thinking I knew about other people, was even close to being true.

You see there is no evil in making assumptions or navigating diversity by type casting people based on very few informations. We all do it. In fact many of you did it already with me now I have been standing here for a few minutes.

You look at me, you listen to me and you decide what type of person you think I am. But is it true what you have decided? Maybe for you but I might not agree. So why not sit down and talk about it. Maybe you will learn something unexpected, maybe you will gain insight and perspective on the subject. What do you have to lose? Your opinion on someone?..

Before coming here to visit your country I gave some thought to what I was thinking about people from South Korea. Based on the few impressions I have had in my life and on the stories I have heard or been told about South Koreans.

My first negative impression was bestowed upon by American movie Director Mr. Spike Lee in 1989, when I first watched his . Three drinkers are sitting on their street corner in Bedstuy, New York, part of Brooklyn. The oldest of the drunks looks across the street at the vegetable shop on the other corner. Outside is a Korean man putting apples in place. The drunk then goes on to complain about the conditions for black people in the neighbourhood. He complains that all of shops on the street are owned by other people than black

people and then goes on to make a very derogatory remark about the Korean people.

Something in the context of "they have been in the country two weeks and then they open up a shop in a black neighbourhood". Now one of the complaints of many Western European governments of today is that immigrants are passive and do not contribute to society. But surely the high level of initiative, work morale and dedication of the Korean people, should be considered a valued contribution for any country.

Spike Lee somehow got me to think that it was a negative. A negative that Koreans were willing to work so hard everyday to achieve the goals they set for themselves. Now I let my thoughts fly and came up with some of the stereotypes that I think are predominant about people from South Korea and just for fun, to show you how these things exist I want to share some of them with you here today. Maybe you will laugh or even recognize something in them, so here goes and please do not take offense as this is merely an exercise to illustrate the dynamics of stereotypes and thus underline the need for Human Libraries in civil society.

"Koreans talk extremely fast"

"Koreans are part of a closed community it is nearly impossible for outsiders to enter social circles and thus they are not willing to integrate with other non-Korean community members, some may view this as being snobby or reserved or even worse, intolerant to people from other cultures -why else would they not want to integrate with them? Let them in?"

"Koreans push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o always perform or aim to perform at the very highest level possible. As in you are overly ambitious and way too serious and uptight" - I got that from a letter I read in the International NY Times, a letter by an American educator who used to teach English in South Korea for 12 years. He described in detail the school day for young children and how they start early by cleaning the school and classrooms, before the start of the teaching and all through to the late ending

with buses taking the kids home, basically to just sleep, get up and go again. He put together a days program in a way so that I thought.

"Oh my god, there is no room to play. No space for being a child and to enjoy childhood. And if this continues, we will have no jobs left in Denmark in 30 years from now, because we are simply being out-educated, out smarted and pressured to work 50-60 hours a week, rather than the extremely comfortable 37 hour work weeks we have in Denmark today."

Some last reflections on my own stereotypes out about Koreans. Is related to the work place and the status of education. It seems to be a personal disgrace if you somehow fail to be a huge success in the work place. I once lost a job and I actually felt I had done a good job, but somehow the needs of the workplace had changed or they were not happy with my contribution. But surely I was very disappointed and felt somehow that I was a failure. But later on I realized that I was not the failure, but the victim of a bad management culture in the workplace.

My prejudice about Koreans is that if you lose your job, its like losing your life and your identity and that some people will actually go home and commit suicide because they lost their job. I mean, come on people, it's just a job... there are more jobs out there and we are only people. We cannot expect to be a perfect match to every workplace.

Finally I have this preconception that education is everything in this dynamic place. If you have a high education you have status. If you don't well then you could say that you are worth less. This is not an especially South Korean tendency but something that is widespread in develope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t seems we have built an education hierarchy and the value and status is closely tied into education and job position...but is that all we are? A school and a job?...I would hope for so much more.

I am not sure how many of the before mentioned stereotypes are true, but I sure hope to get a chance to find out, during my stay here in South Korea. And that is part of the essence of the Human Library approach. To offer this

opportunity for people to challenge their ideas about other people.

And the Human Library is the vehicle that will allow you to challenge these stereotypes and go behind the facade or surface if you like.

But before we get into the practicalities of setting up and presenting a Human Library. One more question must be answered. And that is "why should we even care, that some people feel stigmatized, socially excluded or marginalized because of their education, ethnicity, religion or lifestyle?"

In my view, it is a basic Human Right to be who you are. As long as you live within the rules of law and abide by the social contracts in your society, you should be allowed to be who you want to be without being judged only on the "cover" or "title".

If we do not manage to create platforms for participation and to ensure inclusion, we will continue to see more and more divided communities and conflicts will continue grow as will the gaps between you and your fellow man. Cohesion is the glue of the community, the backbone that ensures peace, safety and prosperity. Without it societies will deteriorate and lose their ability to ensure quality of life for all.

And to prove this point I would like to give an example from my home country, the Kingdom of Denmark. A very small nation but with a proud history.

From the fairy tales of Hans Christian Andersen to LEGO and probably the best beer in the world, Carlsberg. Danes are proud of their inventions and have built their prosperity by being open towards the world. Trading, selling and well let's not forget MAERSK and shipping.

In an annual study of world happiness, the Danes have been at the top for years. Making it look like we are the most happy people in the world. No one in Denmark believes that, but the survey keeps showing we are at the top.

But desperation lurks under the surface as the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hit Europe. Politicians turned the screws on the underprivileged and unemployed, making matters only worse and creating an even bigger social imbalance. But what happens to a society when you allow people to drop to the bottom? They become desperate and what do desperate people do? Desperate things...

This means that our young people are now put at risk because so many of them carry an expensive Samsung Smartphone or Iphone in their pocket. They are targeted in street robberies by desperate people, often from deprived areas and from families with very low social status. Crime of this type is on the rise, creating more insecurity and again splitting people up. Between those who have found their place in society and those who are not allowed or somehow systematically being frozen out, just because they are from a Muslim country or because they are disabled or because they have suffered from a mental illness. This again takes away from the collective quality of life in the society. If I have to worry everyday my child is out to have fun with friends, that somehow will assault my daughter, because she has an Iphone or other expensive goods of value. Our children are brought into the line of targets and this is just unacceptable to me, with the amount of tax I am paying. I expect the society to be a safe place and that the authorities will do their utmost to ensure cohesion so that no one is desperate, that they will attack or kill someone else for scrap.

I love the opportun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used to live there as a child, I went to High School in New Milford, Connecticut. Only 10 miles from Middle Town, the setting of a recent school shooting. And the shootings are symptomatic to the exclusion I am talking about.

Or as one story I read from the Los Angeles Times years ago about an african american man who has been shot and killed because someone wanted to take his new 150 dollar NIKE Air Jordan shoes from him and he resisted. Do we really want to live in a world where you can lose your life for a phone or a pair of shoes? I know I do not and that is why I am standing here today.

Well and because I know that the Human Library can help us address some of these challenges.

Now it is really easy to get going and setup a Human Library. In fact once you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and criteria for a Human Library, it's pretty simple...

First you identify the topics that are relevant to the community in which you are planning to present. Next you find good representatives of those topics, i.e. the Human Books, that are to go on shelf and meet the readers. After preparing the books you start the practical part of preparing the event. Deciding on location, opening hours, duration of loans, marketing materials et c...and before you know it. You are lending out people and building an understanding for diversity through earnest dialogue in a framework provided by you and well in partnership with us.

The rules for organizers are simple. Content, content, content. If the content is not right and the aim and objectives of your event are not clear. Well then think again. Stereotypes and prejudices must be addressed. If you are not courageous enough to do that, please find something else to do. And if you think for one second that readers do not have the courage to challenge themselves, then you are indeed underestimating the readers, their motivation and the potential outcomes of a Human Library.

Now some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have seen the Human Library as a great marketing tool to bring about attention to their cause, target group, problem or theme. Thus some have created monsters and turned me and my staff into monster killers. Something we prefer not to have to spend time on. As this concept is so straight forward, there could be no mistaking its aims and objectives.

One organization working for the mentally ill liked the idea but did not want to share the platform with people who were facing other prejudices. So they tried to setup a Human Library event full of books all relating to being homeless. This is not a Human Library as Readers have very little choice. In fact it

reduces the methodology to mere propaganda or a marketing for a special interest group. Readers have very little choice and you might say that you do not really challenge anything. This is a monster and we will not allow it in our name.

We have seen many different monsters from selfish organizations or people only concerned with their own little group. And it has even gone very wrong for some of them. Like in Poland, where a local LGBT NGO got the idea to use the Human Library to try and address the very high level of intolerance against Gay, Lesbian and transsexual communities. A well worthy cause to address but when you fill up a Human Library only with LGBT books, you can also become a provocation to some and thus an easy target.

The event in Poland was disturbed before it even opened by radical right wing extremists who told the books to go home or get a beating. Obviously Poland has issues with this topic and so bringing one Gay and one lesbian for example and mix them with 15 other books on other topics, would be a much more viable approach and not a provocation in the same sense. But it would also make it a true Human Library and not a monster.

But you do not have to create a monster to get in trouble with crazy people. In Voronezh, Russia our local partner hosted a Human Library for tolerance and understanding at a local book cafe and library centre. The event was interrupted by a young extremist who used pepper spray against a book and a volunteer organizer. He screamed out loud that there was no need for tolerance and understanding, just before the police arrested him. Russia is a difficult place as there is widespread intolerance towards especially members of the LGBT community. You can literally get beaten up or killed on the street, if you are openly GAY. Now is that what we want for our children? That they have to hide who they are to survive? And what quality of life will that bring them?

So I hope it's clear to everyone here that the aim of a Human Library should always be to address stigma, prejudice and stereotypes, that are common in the local community.

To build relations, cohesion and understanding and prevent violence and conflicts. We welcome you to join us on this mission to build a better world. A more tolerant world that benefits fully from its amazing diversity. Rather than streamline people and force everyone to be and do and think the same.

And although we realize this is not an easy mission. We continue to grow. From library to Universities, towns to cities, and countries to continents. Stereotypes and prejudices are everywhere and so should the Human Library be.

From Denmark we went on to Hungary, Norway and Portugal. To test the adaptability and potential for implementation in other countries. We found it had global appeal and from there we gone on to another 60 + countries with Africa joining us this year making it all 7 continents.

We came to South Korea a few years ago but noticed that many who wanted to use our concept did not respect its principles of diversity in content and that books should not be storytelling but rather enter into an open dialogue about their topic.

So now we have come to re-launch the concept. To ensure that this serves its purpose and is allowed to deliver its full potential and outcomes to the civil society of South Korea and not just be a marketing instrument for desperate organizations or companies, that are without the courage to do it right. You are all here, because we believe you are among the leaders of the communities, that have not only the potential to lift this task but also the right approach to building a better society.

I personally look forward to seeing the Human Library Korea, grow into a beautiful garden that will flourish and enrichen your society and raise the quality of life for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or somehow deselected.

And please remember that every country has its own stigmas and stereotypes. Some are universal bestsellers you might say but others are indeed specific to a country or region. And in each country local adaptation must be done, so

that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in our cultures and mentality. Like in the United States, most organizers provide a stop watch to every book, so they remember to keep the time and not have a late return.

In other countries we offer dictionaries that help translate books and aid with the reading. Finally something that is universal to all events. We provide great books delivered by great people and hosted in a neutral framework. Events organized by official partners that are engaged in the community, engaged in creating a social change, in building tolerance for those less tolerated, despite their human right to be who they want to be...

I want to close on a thank you to our partners and hosts from the Hope Institute and the Lifelong Learning Centre in Suwon. Without their great efforts and commitment, we would not be here today and for that I am indeed very grateful.

We have agreed with the Hope Institute that they will serve as the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Human Library Korea and as such they will help quality ensure your events and to ensure that no more monsters are born.

Thank you again for your attention and for your dedication to deliver strong content and give readers the chance of a lifetime.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hope many of you will become official Human Library Organizers under the Hope Institute umbrella.

사 례 발 표  
1

국내 최초 공공기관에서의 상설 운영  
**노원휴먼라이브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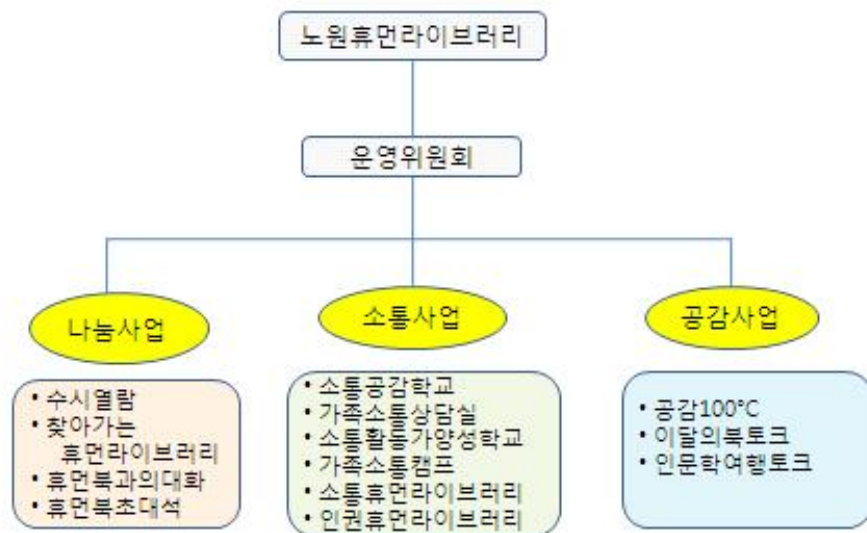




# 국내 최초 공공기관에서의 상설 운영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양시모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

## I.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조직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조직도

## II. 활동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나눔·소통·공감을 실천하는 휴먼북의 재능(생활)나눔 인적네트워크이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활동 지역인 노원은 전국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장 많고, 새 터민, 다문화가족,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특히 몇 년 전까지 일반 주민의 자살률이 서울에서 1위를 달리던 곳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주부의 경우는 다양한 원인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배려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아직 본인들조차도 주변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생활고와 가정불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자살의 충동을 겪고 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복지적 성격의 나눔사업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 설계조차 못하고 있는 서민층 청소년들에게 직업관을 세워주고 다양한 휴먼복이 희망을 키워주는 사업이 절실하였다. 그리고 소통부재에서 오는 가정불화,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한 발짝 다가가고자 적극적인 소통사업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이웃을 공감하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을 공감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감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휴먼복 조건은 편견을 경험한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30분 이상 자신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하였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나눔·소통·공감 중 중심은 역시 소통이다. 그러나 그 출발은 나눔이다. 이웃을 돌아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나눔에서 소통을 시작하였다.

## 1. 나눔은 잠시 옆을 돌아보는 것이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나눔사업으로 먼저 재능나눔을 선택하였다. 내게는 상식이지만 이웃에게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 재능은 나눠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재능나눔은 누군가의 인생행로에 친절함 이정표가 되어준다. 재능을 나눠주는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소통의 물꼬가 열린다. 나와 내 이웃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노원은 서민층이 과반을 넘는 베드타운이다 보니 재정이 열악하다. 따라서 노원에서 재능나눔은 주민간 소통을 열어가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두 번째 나눔으로 경험(체험)나눔을 함께 시작하였다. 휴먼복마다 스토리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체험,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해외체험, 그리고 지난한 삶 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와 인생이야기 등. 나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 전문적이지 않아도 남보다 앞선 경험이 있다면 휴먼복이 되어 자기만의 생생한 목소리로 삶의 한 토막을 나누게 된다. 그 속에서 휴먼복마다의 향기가 묻어난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경험(체험)나눔 이야기 한마당이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나눔사업을 통해 주민 간 소통하고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나눔사업으로 수시 열람, 찾아가는 휴먼라이브러리, 휴먼복과의 대화(대규모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 휴먼복 초대석을 운영하고 있다.

## (1) 수시열람

- 수시로 휴먼북을 열람 신청하여 휴먼라이브러리 카페에서 만남.
- 홈페이지에서 열람 신청 후 1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열람 날짜를 잡게 됨.
- 주로 1:1~3 형태로 진행됨.
- 주간 신청자는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이고 주말 신청은 직장인, 학생들이 많다.

## (2) 찾아가는 휴먼라이브러리

- 휴먼라이브러리 카페가 노원정보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어 노원구 내 다른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불편한 것을 고려함.
- 각 기관 순회 방문하여 휴먼북 열람 행사를 실시함.
- 10명 내외의 휴먼북으로 구성되는 이벤트식 열람 행사, 또는 특정 휴먼북이 복지관 등의 초청을 받아 찾아가는 방문 열람 행사로 구성되어 있음.

## (3) 휴먼북과의 대화(대규모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

- 학생 등 신청 수요가 많은 층을 대상으로 함.
- 특정 날짜에 50~100명 규모의 휴먼북을 동시 초빙하여 진행되는 축제형 직업체험 열람 행사임.
- 통상 학교 운동장을 빌려 파라솔이나 천막 부스를 휴먼북 인원만큼 설치함.
- 관내 5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행사를 진행함.
- 동시에 많은 휴먼북이 참가함으로써 독자인 학생들의 직업체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휴먼북 간의 친교의 자리가 됨.
- 봄, 가을 연 2회 운영함.

## (4) 휴먼북 초대석

- 격월로 휴먼북 및 독자가 합동으로 휴먼북을 열람 신청하는 휴먼북 독자의 다함께 수다방 형태.
- 만들게 된 배경: 휴먼북이 가진 주제가 어렵거나 전문적일 경우 만나고 싶긴 하지만 개인이 열람 신청하기에 부담스러워 열람 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열람 활성화 프로그램.
- 공동으로 특정 휴먼북을 초빙하여 휴먼북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간단한 강의 형태로 듣고, 2부에 토크쇼 방식으로 인생이야기를 듣는 수다방 형태로 진행함.
- 진행자가 따로 있어 독자로 참가한 사람들(휴먼북+손님)의 대화 참여 부담이 가벼워지고, 개인당 1개의 질문만 준비해도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갈 수 있음.
- 휴먼북 간 교류의 장이 되고 일반 독자들에게 다양한 휴먼북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

는 편의를 제공함.

- 쟁점과 토론을 만들지 않고 휴먼복의 전문성을 이야기 식으로 풀어가므로 열람 행사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음.
- 독자는 10~30명 정도임.

## 2. 소통은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헤아리는 것이다.

소통은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존재, 행동,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해 주는 것이다. 아홉이 하나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홉이 하나를 배려하는 약자의 인격이 보장되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생활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다. 그만큼 사회의 소통지수는 낮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가 약한 나라다. 차가운 문화가 가정까지 파고들어 따뜻한 보금자리이어야 할 가정조차도 벽이 되고 상처가 되어 있는 사회이다. 나와 자녀와의 벽, 나와 부모와의 벽, 나와 배우자와의 벽, 나와 친구와의 벽, 나와 이웃과의 벽, 나와 세상과의 벽, 나와 나 자신과의 벽. 나를 둘러싼 수많은 벽에 싸여 소통부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이 수없이 많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지역사회의 막힌 벽을 뚫는 소통의 큰 물줄기이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경쟁일변도의 교육만 받아 소통, 공존, 배려의 의미를 멀리해온 주민들에게 소통이 왜 경쟁보다 중요한 가치인지, 왜 민주주의는 배려와 공존이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또 다른 편견의 피해자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나눔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극적 소통을 넘어 적극적인 소통 사업으로 소통공감학교, 가족소통상담실, 소통활동가 양성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가족소통캠프, 소통휴먼라이브러리, 인권휴먼라이브러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1) 소통·공감 학교

경쟁 위주의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열람 신청 때도 스펙위주의 신청이 많고, 휴먼복의 스토리에 대한 대화 접근을 어려워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과도 소통에 대한 기본 상식이 부족하여, 감정표현이 왜곡되어 불화와 갈등, 냉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통이 왜 필요한지 인식 교육과 소통하는 생활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교육이 필요하였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명상교실: 자신과의 소통법을 배워 상처받으며 살아온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맑고 따뜻한 영혼을 회복한다. 나아가 충전된 에너지로 타인의 마음을 감싸주는 행복 전도사가 된다.
- ② 자녀와 소통을 위한 청소년심리 강좌
- ③ 부부사이의 소통을 위한 참부부이야기
- ④ 소통·공감 대화법 훈련

## (2) 가족소통상담실(명칭: 생생충전소)

청소년 고민, 가족갈등 등의 상당한 부분은 굳이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 상당 부분이 소통의 부재, 왜곡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휴먼복의 자원활동으로 생생충전소를 만들어,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담을 통해 일부 풀어주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소통교육 등에 대한 안내를 한다.

- 매주 토요일 1시~5시까지 즉석 심리테스트와 상담이 진행됨.
- 추가적인 지속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따로 날짜를 잡아 휴먼카페에서 연속 상담을 이어감.
-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미술치료, 명상치료 등 해당 휴먼복과 연계하여 치료를 진행함.
- 상태가 위중한 경우는 구청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함.
- 홈페이지나 평일 방문 신청자의 경우는 해당 휴먼복과 열람신청 형태로 날을 잡아 상담을 진행함.

## (3) 소통활동가 양성학교

- 주민들의 소통·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주민 소통활동가를 양성함.
-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도 활동과 연습모임 참여를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현재 1기생을 배출하여 관내 4개 도서관에 소통활동가로 배치함.
- 소통공감학교 졸업생과 연계하여 소통을 위한 주민 연습 모임을 준비 중임.

## (4) 가족소통캠프

통상 소통공감학교는 엄마들이 주로 참가한다. 가족소통상담실은 아이들만 들여보내고 엄마 아빠는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 불통가족의 우울한 하루는 소통공감학교를 졸업한 엄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상담을 받고 나오는 아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족의 3주체(엄마, 아빠, 아이들)가 함

께 소통의 의미를 느끼고, 소통을 실천해 낼 수 있게 도와줄까 고민한 사업이 가족소통캠프이다.

- 소통활동가보다는 다소 전문가의 능력이 결합되어야 할 프로그램이어서 예산 마련과 시간적 준비가 필요함.
- 현재 계획은 격월 1회 정도 5~10가족이 모여 6~8시간 정도 소통 훈련을 하고, 함께 소통의 절실함을 느낀 후, 가족소통계획서 작성과 실천 결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후 소통연습모임을 통해 꾸준한 관리를 해주는 것도 필수적임.

### **(5) 소통휴먼라이브러리**

- 다양한 휴먼북 중 평소 자신의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기피했던 그룹의 휴먼북 만나기.
-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고 있는 그룹의 일원을 별도 초대하는 열람 행사.  
(경험상 사회적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은 상설 휴먼북 등록을 부담스러워 했다.)
-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개인) 구성원을 초대하여 소통하기.  
수시열람 등 나눔사업에 속한 프로그램은 독자가 선호하는 휴먼북을 신청하여 만나는 것이라면, 소통휴먼라이브러리는 독자가 기피하는 휴먼북이나 집단(개인)을 신청하여 상대에 대한 편견을 깨고 공감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휴먼북은 등록된 회원 휴먼북일 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는 집단의 일원을 초대할 수 도 있다.

### **(6) 인권휴먼라이브러리**

-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
- 인권사각지대의 사람들을 휴먼북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함.

## **3. 공감은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온 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편안하게 공감할 기회는 적어진다.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잣대를 가지게 된다. 이웃 간에 먼저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힘들어 한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잠깐 만나도 금세 깔깔거리며 잘 논다.

공감은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타인의 목소리에서 편안한 공감을 느껴보는 곳이다. 나와 이해관계가 적은 곳에서부터 마음을 열고 공감을 맞본다. 낯선 사람을 통한 공감은 점차 가까운 사람과도 소통하고 공감하게 한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마음의 창을 열고 공감을 맞보는 곳이다.

잠시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본다. 상처받으며 살아온 나 자신과 소통하고, 일방통행이었던 자녀와 공감하고, 화석처럼 굳어가는 배우자와 새롭게 사랑하게 된다. 이웃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눈빛을 나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주민들의 공감 지수 향상을 위해 '공감100°C, 이달의 북토크, 인문학 여행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 (1) 공감100°C

- 휴먼북이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20~30분 정도 강연하고, 독자들은 함께 공감해 주는 프로그램임.
- 강연자는 휴먼북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독자는 공개적일 수도 있고, 자신의 주변사람들일 수도 있음.
- 이야기가 직업 변천과 관련된 흐름일 경우는 2부에 청소년들과의 독자열람 시간을 따로 마련함.

### (2) 이달의 북토크

- 책을 매개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공감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함께 수다를 이어가는 공감 수다방 형태임.
- 가급적 쟁점 토론은 피하고 각자의 느낌과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하는 사람마다의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 공감해 주는 자리임.

### (3) 인문학 여행 토크

- 국내·외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선정하여 방문경험자들이 간단한 여행이야기를 함.
- 진행자가 그 지역과 관련된 인문학적 내용을 소개함.
- 그 지역 방문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은 기억을 되새기며 관련 이야기를 다시 풀어감.
- 미경험자들은 질문을 통해 자신이 여행을 갈 경우 좀 더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얻기도 함.
- 특정 지역의 이야기와 여행을 매개로 긴장된 현실생활로부터 벗어나는 여유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Ⅲ. 운영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데이터로서의 휴먼북이 아니라, 생동하는 자원활동가로서의 휴먼북이 나눔·소통·공감을 실천하는 곳이다.

#### 1. 휴먼북은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운영 주체이다.

휴먼북은 대출 대상이 아니라 활동 주체이다. 휴먼북은 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활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서가로 구성된 정지된 도서관이 아니라 움직이는 활동가 휴먼북으로 구성된 움직이는 도서관이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휴먼북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휴먼북은 나눔·소통·공감을 프로그램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주민과 함께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아니라 인적네트워크로서 사람도서관이다.

#### 2. 상설 휴먼라이브러리는 휴먼북의 소속감과 참여도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

휴먼북은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갖는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가 상설 휴먼라이브러리의 성격을 갖는 것은 휴먼북을 수시로 대출할 수 있어서 뿐만 아니라, 활동회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500여 휴먼북이 있기 때문이다.

재능기부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재능기부 승낙서만 제출하고 막상 활동은 하지 않는 기부자도 많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페이퍼 휴먼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가급적 모든 휴먼북 신청자는 직접 인터뷰 후 회원으로 가입을 받는다.

그리고 재능나눔(열람활동) 실천을 통해 보람을 맛보게 되면 소속감이 높아진다. 따라서 휴먼북의 열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열람 방식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회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 공감도가 높아지면서 활동 참여도도 높아진다.

#### 3. 상설 휴먼라이브러는 창의적인 조직 운영이 중요하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자발적인 휴먼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실무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다. 소속감 높은 휴먼북의 발굴,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핵심 업무는 실무진과 운영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다. 소통공감학교, 이달의 북토크, 인문학 여행 토크 등 경륜이 필요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도 외부 강사 없이 가능한 것은 운영위원들과 핵심 휴먼북들이 적극 진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운영위원과 실무진의 깊은 소통·공감 덕분에 운영위원회도 매월 개최한다(규정상으로는 분기별 1회 개최). 운영위원회는 실무진이 프로그램 진행자를 고민하면 적절한 휴먼북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 실무진들은 천편일률적인 휴먼북 유대 프로그램을 극복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휴먼북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만한 유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휴먼북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한다. 향후, 열람 활동 빈도가 적은 휴먼북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휴먼북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 IV. 휴먼라이브러리의 발전 전망

### 1. 한국 사회에 산재한 다양한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휴먼라이브러리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유럽식의 이벤트 휴먼라이브러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편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눅 들지 말고 자신의 얘기를 할 기회를 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기회를 동시에 주어야 한다. 한국 사회 전체가 편견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이벤트 휴먼라이브러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개별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필요한 지원은 상설 휴먼라이브러리에서 혹은, (가칭)한국휴먼라이브러리 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 2. 상설 휴먼라이브러리로서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설화 움직임에 앞선 경험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상설화는 이벤트 도서관 시스템과는 달리,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 휴먼북의 모집,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전 과정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의 과정으로 연속되어 있다. 소통 능력이 있는 전문사서의 배치에서부터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공공도서관은 정보·문화의 매개자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통을 매개하는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진화해 갈 수 있다.

휴먼북은 나눔·소통·공감이라는 가치 실현 활동을 상설화된 도서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곳곳에서 펼쳐나갈 것이다. 찾아가는 휴먼라이브러리, 찾아가는 소통공감학교, 청소년직업체험 축제 등 지역주민·단체와 합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또한 휴먼북은 나눔·소통·공감이라는 기본 가치 실현 활동 외에도 도서관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살아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휴먼북 문화봉사단 결성을 고민하고 있다. 문화봉사단은 비용을 들여 공연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비용 없이 공연을 나누고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천하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고가의 문화예술은 수익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층만이 누린다. 재능나눔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연예술은 기교는 떨어질지라도 감동은 깊다. 감동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그래서 재능나눔 공연은 감동이 전해지면서 소통과 공감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휴먼북의 스토리 독자를 만나기도 하고, 휴먼북의 공연으로 독자를 만나기도 할 것이다. 공연을 하는 사람과 공연을 즐기는 사람이 함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복지는 큰 재원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교육, 문화 콘텐츠의 단순 제공자에서 휴먼북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콘텐츠를 재가공, 창조하고 나누는 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휴먼북이라는 동적인 주체가 결합함으로써 이제 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에서 동적인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다양한 주민이 휴먼북이 됨으로써 주민이 비로소 도서관의 이용자에서 프로그램 운영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주민을 휴먼북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이용자이면서 운영자로 나서게 하는 출발점이다. 도서관 2.0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이 매개자가 되어 도서관과 지역주민, 주민과 주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 휴먼북! 참 좋습니다~

한 달 전 열람 신청을 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휴먼북 윤선화 선생님!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꼭 다시 연락하자면서 제 손을 잡아주신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 고민을 적극 들어주시고 선생님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선생님을 통해 얻게 된 정보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현실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서비스"라는 낯선 영역에 발을 내딛는 일이 몹시 두려웠으나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람과 사람간의 인정을 믿고 인적 교류에 먼저 힘써 장애인, 장애인의 가족 분들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대화로 통해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중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경험, 생생한 지식, 노하우 등을 나눌 수 있는 '휴먼북' 성장하는 도서관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원휴먼북라이브러리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 가평 도서관 ooo

### 안녕하세요!

오늘 휴먼북과의 대화를 신청했던 ooo입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제 미래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취업 준비 중이라, 어디는 연봉이 얼마에, 누구는 어느 회사 갔다더라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부모님도 전화 할 때마다 취업준비는 잘 되느냐 물으실 만큼 걱정이 많으세요. 주변에 휩쓸려 저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막연히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하나'하고 내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도우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너무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확장시키다 보면 새로운 목표가 계속 생긴다는 말씀이었어요. 목표가 엄청날

필요도 없고, 너무 먼 미래의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10년 후 목표를 쓰라는 항목에 더러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쓰라고 하면 거짓말밖에 쓸 수 없었거든요. 우선 제가 관심 가는 일을 찾아 시도해보면서, 작은 목표부터 세워야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많이 도우라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좋다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꼭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여러 가지 일을 접해보고 더 많이 경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은 많이 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1년 후에도 생각만 하고 있겠죠? 지금까지 해 왔던 버릇이 있어서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생각이 바뀐 만큼 행동도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겠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제가 많이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 다시 한 번 메일 드릴게요!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분들한테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 더 뜻 깊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의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준비생 000

## 장애인 정치 입문에 관한 휴먼북라의 시간!



오늘 장애인 정치 입문에 관한 주제로 휴먼북 두 분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두 분이 성심성의껏 사심 없는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휴먼북이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하얏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휴먼북과의 만남을 통하여~

평소 미국대학 MBA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었던 차에 휴먼북을 통해 MBA 과정을 마치고, 지금 미국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휴먼북을 만나게 되었다. 제가 된 휴먼 북께서는 엄청 친절하셨고, 미국 MBA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주셔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속 시원히 알게 되어 무척이나 기뻐다.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시고, 나누시는 휴먼북님을 뵈고 무척 감동받았으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휴먼라이브러리가 노원에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드리고,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성심성의껏 정보 제공해주신 휴먼북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전화 받고 연결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신 담당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9단님과 알토란같은 대화

휴먼북 신청이 접수되고 휴먼북과의 시간이 정해졌다고 연락이 왔다. 질문사항을 간단히 적어 질문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휴먼북과의 대화 전에 질문을 메모해 두었다. 질문사항은 주부9단님께 요리에 대해 궁금한 점, '감자조림 덜 익거나 타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 등 20문항 좀 안되게 메모해두었다. 드디어 만남이 있는 날. 월요일 오후2시 대화를 위해 10분 전에 도착했다. 시원한 지하카페에 휴먼북(주부9단)님께서 도착하셔서 대화를 시작했다. 친근하게 무엇이든 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셔서 편하게 질문을 드릴수가 있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질문을 넘어서 요리를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건지도 물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데 콕콕 집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모든 요리를 하기 전 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과, 듣기만 해도 맛있게 들리는 요리 방법들, 맛있는 육수 만드는 법, 천연조미료 사용하여 요리하는 법... 주옥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30분이 넘어서도 대화해 주셔서 약45분가량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 공감대화(비폭력대화) 소모임에서

글을 쓰려고 비폭력 대화와 인연을 거슬러 떠올리며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합니다.

비폭력 대화를 만나고 나서 도무지 내 삶이 왜 그리 팍팍한지 원인을 모른 채 가슴 아파만 했던 날들이 환하게 밝혀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배려하여 비공개 모임을 진행해 주셨고, 덕분에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했던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유인 선생님과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주신 휴먼라이브러리 카페 분들에게 늦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시나브로 변해가는 저를 보면서 힘을 냅니다. 9월에 또 비폭력 대화를 접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휴먼라이브러리 생생충전소 1년을 돌아보며

1년 전 청소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휴먼 '생생충전소'의 초창기 멤버로 상담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지하 휴먼카페에서 몇 주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문을 두드려주지 않았다. 최순화 선생님의 제안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1층 로비에서 '도형상담을 통한 성격진단', '청소년 상담', '가족상담'이라는 팻말을 놓고 기다리니 자연스럽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온 가족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주말이라 가족이 함께 상담하면서 자녀나 남편 또는 아내에게 주부 25년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녀양육법과 가족 소통대화법을 소개하게 되었다.



그동안 몰랐던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준 보람이 있었다.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 분들이 다른 구에 사는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도 한다. 생생충전소를 통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자신을 먼저 깨닫게 되고 가족과 이웃들과의 친밀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가족 행복은 소통만 하면 쉽게 열린다.

- 김병희(생생충전소 상담자원활동가)

## 소통공감학교를 수강하니

소통공감학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남(남편,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주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용기를 주었다.

소통공감학교를 듣고 있는 중에 생긴 일이다. 아이와 실랑이를 하다 매를 들게 되었다. 매를 든 이유는 기선을 제압하고 실랑이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아이나 나나 모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험한 말이 오고 갔다. 그 때 갑자기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매를 한쪽으로 치우자 아이는 아직 화가 난 목소리로 "왜, 질 것 같으세요?"하고 나에게 공격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엄마가 더 매를 들면 실수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매를 놓는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도 나를 생각이 들었는지 눈빛이 변하고, 공격적인 말투가 줄어들고,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었다. 상황이 더 진행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모자간의 관계는 더 깊이 금이 갔겠지. 처음에는 아이에게 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음을 깨닫고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춘기 아이들과 힘겨루기는 정답이 아니다. 각자 한 발 물러서서 내 입장과 아이들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하고 타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까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소통공감학교에서 관계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소통공감학교가 고맙다. 더 많은 부모들이 소통공감학교를 통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

- 상계동 주부 한OO

## NVC 비폭력대화 소동활동가 양성학교를 졸업하며...

비폭력... 이 단어가 생각에만 머무르고 있을 때 노원휴먼라이브러리와 만나게 되었다. 공감대화(NVC대화)는 내게 '평안'이다. NVC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안한 만남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을 받기 2주 전에 <비폭력 대화> 책을 먼저 만났고, 나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판단과 비판, 비난적인 언어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나를 보며 놀라웠다. 내 삶에 가장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면서 소소한 잔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NVC1을 수강한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황스럽거나 막막한 상황에서 일단 'STOP'이 된 것이다. STOP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나의 느낌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느낌과 달리 욕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욕구카드를 펼쳐놓고 나의 욕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찾은 후에는 욕구단어에 머무르며 내 자신을 애도했다. 멈추고 호흡하고 '기다림'에 머무르는 동안 불안, 분노감이 가라앉고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을 받는 동안 회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NVC2를 시작하면서 결과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했을 때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정말 상대의 느낌과 욕구에 충분히 머물러 보고 이해하게 되니까 해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탁을 거절당하면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대가 거절한 이유에 머무르고 편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나와 상대의 느낌이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NVC는 내 삶에 평안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까지도 더 풍요로워졌다. 이제 20명 졸업생은 노원구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들처럼 평안하고 행복해지도록 가족소통을 돕는 활동가로 나서게 된다. 노원구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 졸업생 이선옥

## 휴먼북 활동, 1년을 돌아보며...

책이 아닌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신선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게다가 직접 휴먼북이 되어 매우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2013년은 매우 고마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그 덕분에 한 해 동안 휴먼북으로 활동하며 적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주로 학생들이 많았지만 그중에는 나보다 열 살은 족히 많았을 형님뻘 되는 분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가끔은 나를 대출한 이와의 대화 속에서 궁금해 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만큼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새로운 이와의 만남을 통한 또 다른 간접체험을 할 수 있었다. 어쩌면 휴먼북으로 만났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가 만났던 그들이 내게는 또 다른 휴먼북이었는데도 모른다.

그 밖에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세대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적탐구의 기회를 얻어야 할 시간에 제도권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느꼈던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작은 경험

이나마 그들의 인생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건 휴먼북 활동을 통해 얻은 작은 보람이었다.

영화를 만들고 또 글을 쓰는 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시작된다.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휴먼북이라는 이름은 내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폭을 한 해 동안 좀 더 넓혀준 계기가 되어주지 않았나 싶다.

- 임진평 휴먼북 (영화감독/작가)

### **나도 휴먼북이 되고 싶어요!**

본 도서관을 애용하는 동네주민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바 제게 도움이 되었고 혹여나 하는 생각에 제 분야도 재능나눔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신청합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메이크업박스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 학생들의 진로나 고민 등에 제 경험이나 경력이 도움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나아가 일반인들에게 간단한 뷰티팁(beauty tips)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기쁘겠네요.

- 김미정 휴먼북(공연 분장사) 의 휴먼북 등록 사연

## 노먼휴먼라이브러리 활동 사진



▲수시열람 활동 (최순화 휴먼북)



▲공감100°C 휴먼북



▲찾아가는 휴먼라이브러리



▲제5회 휴먼북과의 대화 (상원초등학교)



▲이달의 북토크



▲제8회 휴먼북 초대석



▲소통공감학교



▲소통활동가 양성학교

## 노먼휴먼라이브러리 휴먼북 리스트

| 연번 | 분 류        | 내 용                              |
|----|------------|----------------------------------|
| 1  | 주민(주부)     | 주부9단, 가정살림과 이웃 봉사, 아파트관리         |
| 2  | 주민(주부)     | 대형마트 파트타임의 주부근로자의 애환             |
| 3  | 스포츠(축구)    | 축구를 통한 건강정진 / 서울유나이티드 구단주        |
| 4  | 문화예술       | 공연예술(전통공연예술)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임부회장 |
| 5  | 건강/의료      | 서울가정의학과 원장                       |
| 6  | 건강/의료      | 약을 적게 먹자는 약사이야기 / 화인팜 약국         |
| 7  | 언론인(시사평론가) | 시사평론가란? 전)동아일보, 문화일보 기자          |
| 8  | 학술(교수)     | 생명과학 세계로의 초대, 삼육대 교수             |
| 9  | 경제         | 실패하지 않는 해외투자                     |
| 10 | 경제(CEO)    | 유기농식품유통흐름, ㈜새농 대표                |
| 11 | 경제(컨설팅)    | 경영컨설팅 MBA 과정 상담 이해               |
| 12 | 경제(관세사)    | 수출절차 상담이해                        |
| 13 | 주민(직장인)    | 학습지 교사의 하루                       |
| 14 | 주민(직장인)    | 유기농 식품의 이해                       |
| 15 | 복지/상담      | 성폭력 상담사                          |
| 16 | 경제(컨설팅)    | 복지 분야 경영컨설팅 / 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 17 | 학술(교수)     | 현대 중국에 대한이해                      |
| 18 | 전문직(식품연구)  | 옥수수 수염차 개발자의 연구이야기               |
| 19 | 해외활동       | 영문학 교수의 영국체험                     |
| 20 | 정치         | 정치인의 사회적 역할, 지방자치 의미             |
| 21 | 학술(교수)     | 역사와 현실, 한국의 문화 공간                |
| 22 | 교육(입시)     | 논술, 진학상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
| 23 | 복지/상담      |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기 /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  |
| 24 | 전문직(외국인기업) | 외국인 회사 이해하기                      |
| 25 | 종교(천주교)    | 천주교 생명수호 운동                      |
| 26 | 경제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
| 27 | 여가(여행기획)   | 가족,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 계획짜기           |
| 28 | 복지/상담      | 청소년 상담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
| 29 | 사회운동       | 주민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 전)마들주민회 대표       |
| 30 | 전문직(사서)    | 그림책 읽기, 어린이 책읽기 / 어린이도서관 관장      |
| 31 | 전문직(사서)    | 독서지도, 도서관 이용                     |
| 32 | 해외활동       | 독서지도, 해외체류경험(미국) / 월계도서관 관장      |
| 33 | 봉사활동       | 봉사활동은 내가 의미있게 살고 있다는 증거 / 적십자 단장 |
| 34 | 교육(교사)     | 혁신 학교 왜 좋은가? / 상원초등학교 교장         |
| 35 | 문화(음악)     | 작곡, 음대입시 상담 / 하안문화의 집 관장         |
| 36 | 법조         | 예술가를 꿈꾸는 변호사                     |

|    |           |                                  |
|----|-----------|----------------------------------|
| 37 | 의료        | 장애우,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한의사            |
| 38 | 문화        | 민속문화 동영상, 애니메이션 / 한국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  |
| 39 | 문화        | 문학평론가, 문인등단 상담 / 전)경희대 교수        |
| 40 | 문화        | 오페라 라보엠 등 제작(예술)감독, 삼육대 음악과 교수   |
| 41 | 문화        | 민간신앙, 광대집단연구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42 | 여가(다도)    | 스님과 함께하는 다도, 문학여행                |
| 43 | 학술(연구원)   | 북한에 대한 이해, 청와대 숨은 이야기 / 전)외교안보수석 |
| 44 | 문화        | 탈춤의 이해, 향피리, 국악 / 경기대 음대 교수      |
| 45 | 스포츠(무예)   | 한국에도 전통 무예가 있다 / 전통무예십팔기보존 회장    |
| 46 | 교육(실업교사)  | 실업계 대학 진학상담, IT전자제어시스템           |
| 47 | 대중문화(영화)  | 영화평론가, 영화계 이야기, 영화 재미있게 보기       |
| 48 | 해외활동      | 지구촌 여행경험 나누기(약 50개국 방문)          |
| 49 | 복지(복지사)   |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생활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대표     |
| 50 | 사회운동      | 노원발전과 주부의 역할 / 마들주민회 대표          |
| 51 | 스포츠       | 생활체육은 직장인의 필수(배드민턴)              |
| 52 | 복지(상담사)   | 가족, 청소년 상담, 약물, 알코올 중독 상담        |
| 53 | 주민(직장인)   | 자동차의 모든 것                        |
| 54 | 주민(직장인)   | 공부가 너무 너무 재미있는 늦깎이 만학 직장인        |
| 55 | 전문(자동차판매) | 영업의 달인,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된다     |
| 56 | 봉사(장애인)   | 장애인의 사회참여 가능하고 꼭 해야 할 일 / 구의원    |
| 57 | 정치(구의원)   | 고학으로 노원구의회 의장이 되다                |
| 58 | 정치(구의원)   | 고졸 직장인이 복지대학원 석사가 되다 / 구의원       |
| 59 | 교육(교사)    | 이공계 진로진학, IT전문가                  |
| 60 | 복지/상담     | 청소년 선도상담, 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 61 | 경제(CEO)   | 오뚜기 인생(사업실패와 성공의 경험)             |
| 62 | 문화        | 한국문화, 일본문화 /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소장        |
| 63 | 정치(구의원)   | 구의원이 된 리포터, 치매 시부모 모시기           |
| 64 | 학술(복지교수)  | 지역사회에서 복지 실천, 서울여대 교수            |
| 65 | 레저(산악인)   | 히말라야 등반하기(전문산악인, 누구나 될 수 있다)     |
| 66 | 스포츠/레저    | 스키, 로울러스케이트, 테니스 등 취미스포츠 / 교사    |
| 67 | 공무원       | 고위 공직자 생활 엿보기, 남북관계 / 전)통일부 차관   |
| 68 | 학술(교수)    |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경제학) / 광운대 교수     |
| 69 | 학술(교수)    | 일본 경제에 대한 해부 / 광운대 교수            |
| 70 | 학술(교수)    | 현대중국의 이해 (한류 등) / 광운대 교수         |
| 71 | 학술(교수)    | 헌법과 우리생활, 법대생 사회진로 / 광운대 교수      |
| 72 | 학술(교수)    | 중소기업 혁신 컨설팅 / 광운대 교수             |
| 73 | 교육(초등교사)  | 초등교사 체험, 탈북학생 이해와 멘토링            |
| 74 | 해외활동      | 진로상담, 영어공부, 유학(미국 MBA과정)         |
| 75 | 언론(기자)    | 언론사 합격의 모든 것, 기자생활 / MBN 기자      |
| 76 | 교육(입시)    | 대입상담 / 방송                        |

|     |          |                               |
|-----|----------|-------------------------------|
| 77  | 공무원      | 여성공무원으로서의 보람                  |
| 78  | 교육(입시)   | 대학진학, 진로상담, 학업멘토링             |
| 79  |          |                               |
| 80  | 레저       | 스포츠를 사랑하는 수학 강사               |
| 81  |          |                               |
| 82  |          |                               |
| 83  | 전문직(IT)  | 3D영상의 모든 것 / 공고 교사, 공학 박사     |
| 84  | 전문직(식물)  | 집 높이만한(3m) 고추를 키우는 아저씨        |
| 85  | 문화예술     | 큐레이터, 미술심리치료                  |
| 86  | 문화(인문학)  | 걸어다니는 인문학 백과사전 / 백병원 내과 교수    |
| 87  | 복지       | 노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 노원문고 사장         |
| 88  | 교육(퇴직교사) |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따뜻한 정담          |
| 89  | 주민(기술)   | 저렴한 시설보수(주택) 요령               |
| 90  | 스포츠(건강)  | 중년부터 꾸준한 운동이 노년건강관리의 비결       |
| 91  | 교육(교사)   | 요리는 즐거워 / 전)가정과 교사            |
| 92  | 복지(심리치료) | 놀이 치료 가족상담 / 심리치료 상담사         |
| 93  | 경제(회계사)  | 회계사 이야기, 세무상식, 모르면 손해보는 세금이야기 |
| 94  | 전문직(IT)  | 소프트웨어 어떻게 만들어지나?              |
| 95  | 주민(재능)   | 돈 안드는 아파트 단지 관리 노하우           |
| 96  | 전문직(동물)  | 수의사가 되는 길, 하는 일 / 25시 동물병원장   |
| 97  | 학교(교사)   | 서예가 주는 즐거움, 서예는 학습 집중력을 높여    |
| 98  | 교육(교사)   | 엄마라 불리는 교사, 혁신학교 이야기          |
| 99  | 전문직(동물)  | 수의사 진로체험 / 중계동물병원장            |
| 100 | 정치(구청장)  |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 행복한 노원 만들기     |
| 101 | 의료       | 치과의사에 대한 궁금증 / 아이덴 치과 원장      |
| 102 | 의료       | 약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 종로약국 대표 약사  |
| 103 | 전문직(IT)  | 전산시스템관리(공무원)                  |
| 104 | 봉사(노인)   |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길잡이                |
| 105 | 교사(퇴직교사) | 조기퇴직한 교사의 생활이야기               |
| 106 | 건강(심마니)  | 산삼의 이해, 심마니에 대한 기본상식          |
| 107 | 문화       | 한국문화 이해하기 /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 서울문화  |
| 108 | 경제(CEO)  | 백화점 경영이야기 / 롯데백화점 지점장         |
| 109 | 스포츠(농구)  | 청소년 체육활동 제대로 해보기              |
| 110 |          |                               |
| 111 | 주민(직장인)  | 요즘장래풍속(상조회 직원)                |
| 112 | 언론(학생기자) | 기자를 준비하는 수학도                  |
| 113 | 해외활동     | 프랑스문화 체험, 파리 20년 거주 / 유네스코 근무 |
| 114 | 언론       | 증권 방송의 이해 / 토마토TV 대표          |
| 115 | 건강(기공)   | 전통 기공 건강관리법 (국선도)             |
| 116 | 기자       | 기자 생활엿보기 / 기자 진로체험(일간스포츠)     |

|     |           |                                  |
|-----|-----------|----------------------------------|
| 117 | 기자        | 기자 생활 엿보기 / 기자 진로체험(YTN)         |
| 118 | 문화(국문학)   | 국문학박사, 민화에 얹힌 재미난 이야기            |
| 119 | 법조        | 변호사 진로체험(투병 중)                   |
| 120 | 스포츠(축구)   | 조기축구의 즐거움 / 노원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
| 121 | 정치(구의원)   | 나의 성격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 구의원          |
| 122 | 경제(세무사)   | 세무관련 / 브레인트레이너(뇌교육)              |
| 123 | 교육(음대입시)  | 음악과 입시, 질 좋은 음악의 역할              |
| 124 | 경제(자영업)   | 커피와 문화의 만남                       |
| 125 | 경제(은행)    | 재테크는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 / 우리은행 지점장     |
| 126 | 의료        | 피부과 전문의 / 최광호 피부과 원장             |
| 127 | 해외활동(유학)  | 미국유학                             |
| 128 | 법률        | 법률사무소 사무장                        |
| 129 | 법률        | 로스쿨 1기 변호사(진로체험)                 |
| 130 | 교육(교사)    | 즐거운 학교생활, 편안한 수업시간 / 혁신중학교교사     |
| 131 | 법률        | 소비자, 노동전문 변호사                    |
| 132 | 학술(교수)    | 중국문화 200% 이해하기 / 서강대 중국문화 교수     |
| 133 | 경제(기업인)   | 무일푼에서 세일학원 설립까지 인생이야기            |
| 134 | 복지(청소년)   | 청소년 진로상담 / 청소년 상상이룸센터장           |
| 135 | 경제(사회적기업) | 사회적 기업 경영 / 일촌나눔하우징 대표           |
| 136 | 해외활동(배낭)  | 오지체험, 배낭 세계일주                    |
| 137 | 경제(기업연수)  | 기업연수                             |
| 138 | 전문직(정비)   | 자동차 판금도장 / 대진 카 센터               |
| 139 | 전문직(정비)   | 자동차 정비일반 / 국일 카 센터               |
| 140 | 의료        | 파티마 의원 원장                        |
| 141 | 공무원(경찰)   | 따뜻한 경찰, 안정된 직장 / 일반대학 출신 여자 경찰   |
| 142 | 경제(컨설팅)   | 창업, 소상공인컨설팅, 취업상담 / 마포구 상공회 사무국장 |
| 143 | 사회운동      | 노원 에코센터 사무국장, 환경운동가              |
| 144 | 전문직(농업)   | 도시농민, 농업회사 법인(주) 천연 대표           |
| 145 |           |                                  |
| 146 |           |                                  |
| 147 | 주민(주부)    | 생활 공예, 생활 속의 창조활동                |
| 148 | 의료        | 종합병원 수술실 근무(마취 간호사)              |
| 149 | 학술(교수)    | 컴퓨터공학, IT 분야전망 / 광운대 교수          |
| 150 | 경제(은행)    | 하나은행 근무                          |
| 151 | 공무원(소방관)  | 소방서 안전교육 담당                      |
| 152 | 공무원(소방관)  | 소방서 홍보 담당                        |
| 153 | 공무원(소방관)  | 소방서 홍보 교육 팀장                     |
| 154 | 전문직(군인)   | 공군대령 예편, 직업군인 체험                 |
| 155 | 언론        | 노원신문 기자                          |
| 156 | 언론        | 지역연합신문 기자                        |

|     |          |                                |
|-----|----------|--------------------------------|
| 157 | 해외활동(유학) | 프랑스유학, 도서관 사서                  |
| 158 | 전문직(사서)  | 도서관 사서                         |
| 159 | 경제(자영업)  | 미플 피부샵 운영, 피부관리사               |
| 160 | 전문직(건축사) | (주)시원건축사 사무소대표                 |
| 161 | 경제(자영업)  | 헤어뱅크,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원장            |
| 162 | 전문직(군인)  | 육군 중령으로 전역, 육군 군대 체험           |
| 163 | 의료       | 우신치과 원장                        |
| 164 | 경제(부동산)  | 자산관리요령, 마크앤파이낸스의 PB로 활동        |
| 165 | 복지(장애인)  | 동천학교, 사회적기업 동천대표               |
| 166 | 의료       | 임상수 치과 원장                      |
| 167 | 전문직(공단)  | 중량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학(생태환경과 인간)     |
| 168 | 건강(명상)   | MBC, 헬스조선명상강사                  |
| 169 | 주민(주부)   | <엄마표 두뇌 튼튼 밥상>저자, SNS 파워블로그 운영 |
| 170 |          |                                |
| 171 | 레저       | <동굴에서 살아남기> 책 대한동굴탐험 연구소       |
| 172 | 건강       | 약 안전하게 먹기 / 소망약국 대표약사          |
| 173 | 전문직(디자인) | 그래픽 디자이너의 꿈 / 리빙디자인 대표         |
| 174 | 교육(교사)   | 서울동천학교 특수교사                    |
| 175 | 문화(음악)   | 한국기타협회 회장, 노원음악협회 회장           |
| 176 | 언론(PD)   | TBS독립, 다큐멘터리 제작                |
| 177 | 공무원      | 우체국 공무원                        |
| 178 | 교육(초등교사) | 즐거운 초등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교장         |
| 179 | 공무원(의료)  | 보건소 소장(의사)                     |
| 180 | 대중문화(영화) | 영화감독, 중앙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          |
| 181 | 복지(상담)   | 함께 가는 노원 장애인 부모회               |
| 182 | 복지(상담)   | 다문화가정 한글, 봉사 / 미술심리치료사         |
| 183 | 문화(작가)   | 작가(소설, 동화)                     |
| 184 | 문화(작가)   | 인터넷 방송작가, 관악 '살터' 청소년 체험활동     |
| 185 | 문화(사진)   | 전)중앙일보 사진기사,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
| 186 |          |                                |
| 187 | 복지(복지사)  | 복지상담, 복지관 운영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근무    |
| 188 | 교육(사서교사)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사무처장             |
| 189 | 복지(상담)   | 꿈 문화 기획자, 청소년 상담               |
| 190 | 문화       | 전통문화(맛기행) / 현)프레시안음식문화학교 교장    |
| 191 | 사회운동     | 시민사회활동가 / 노원청년회 회장             |
| 192 | 복지(아동)   | 노원교육지원센터장, 지역아동복지              |
| 193 | 복지(청소년)  | 청소년 상담 / 나우대안학교 교장             |
| 194 | 정치(구의원)  | 퇴직공무원에서 구의회 의장이 되다 / 구의회의장     |
| 195 | 전문(생명공학) | 생명공학, 유전자, 제약회사 특허팀 근무 중       |
| 196 | 학술(연구원)  | 산림과 경제 이야기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

|     |           |                                 |
|-----|-----------|---------------------------------|
| 197 | 경제(은행)    | 우리은행 지점장                        |
| 198 |           |                                 |
| 199 | 복지(청소년)   | 고교생 또래상담, 중,고생 자기주도 학습법         |
| 200 | 소수자(중국인)  | 중국 부인의 한국생활, 노원구 다문화센터 활동       |
| 201 |           |                                 |
| 202 |           |                                 |
| 203 | 의료        | 대학병원(간호사)                       |
| 204 | 의료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고객만족실 팀장(간호사)       |
| 205 | 교육(사서교사)  | 초등학교 사서교사                       |
| 206 | 교육(사서교사)  | 여고 사서교사                         |
| 207 |           |                                 |
| 208 | 교육(사서교사)  |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서교사                |
| 209 | 교육(사서교사)  | 고등학교 사서교사                       |
| 210 | 여가(다도)    | 석정원 다도강사                        |
| 211 | 해외활동      |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중국생활, 중국유학         |
| 212 | 복지(청소년)   | 자기주도학습, 미술심리치료                  |
| 213 | 복지(청소년)   | 음대입시, 기악, 학교폭력예방 강사             |
| 214 | 복지(청소년)   | 미술심리상담사, 치료사                    |
| 215 | 공무원(복지사)  |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
| 216 | 해외활동      | 프랑크푸르트체류                        |
| 217 | 주민(재능)    | 영어회화 쉽게 배우기                     |
| 218 | 해외활동      | 베트남 참전용사의 구사일생 평화이야기            |
| 219 | 해외활동      | 홍콩 체류, 외국계 항공사 스튜어디스 이야기        |
| 220 | 교육(유치원교사) | 유치원 교사 경험, 청소년지도                |
| 221 | 주민(재능)    | 일반인의 좌충우돌 미국인과 대화하기 성공담         |
| 222 | 정치(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나라사랑법, 독립유공자 가족이야기        |
| 223 | 해외활동(유학)  | 어린이조기유학(뉴질랜드)                   |
| 224 | 복지(청소년)   | 청소년 상담, 범죄심리 전문 / 법무부 특별범죄 예방위원 |
| 225 | 교육(교사)    | 여자중학교 국어선생님                     |
| 226 | 공무원(초급)   |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의지가 중요해             |
| 227 | 공무원(초급)   | 내 삶의 든든한 젊은 이웃                  |
| 228 | 복지(청소년)   | 청소년리더십, 부모역할 / 전)노원청소년수련관장      |
| 229 | 경제(회계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란?                    |
| 230 | 의료        | 간호사, 늘 꿈꾸는 자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
| 231 | 의료        | 연세 방병원장, 정형외과 의사의 길             |
| 232 | 의료        |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멘토                 |
| 233 | 복지(복지사)   | 병원에서도 복지혜택을 찾아보세요. (병원복지사)      |
| 234 | 의료        | 박병규 내과 원장, 인생이 길어진 만큼 건강도 체크    |
| 235 | 공무원       | 퇴직 공무원                          |
| 236 | 전문직(역무원)  | KTX 덕계역장, 고전을 공부하는 역무원          |

|     |          |                              |
|-----|----------|------------------------------|
| 237 |          |                              |
| 238 | 문화(수필가)  | 수필가가 되는 길                    |
| 239 | 경제(자영업)  | 인테리어                         |
| 240 | 해외활동(일본) | 일본문화, 일본인이 본 한국문화 / 경희대 교수   |
| 241 | 학술(IT)   | 정보보안 / 컴퓨터보안정보학과 교수          |
| 242 | 해외활동     | 자유여행 두려울 것 없다.               |
| 243 | 문화(시인)   | 시인이 된 조각가                    |
| 244 | 문화(민속)   | 한국의 민속,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근무       |
| 245 | 전문직(토목)  | 토목 감리사, 토목은 여전히 안정적 직업       |
| 246 | 해외활동     | 세계여행을 하면 겸손해 진다.             |
| 247 | 법률       |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
| 248 | 경제(자영업)  | 안경사, 굿피플 안경점 운영              |
| 249 | 언론(PD)   | "中國, 中和를찾아서"100부작기획, 제작      |
| 250 | 의료       | 상계백병원 심혈관센터 방사선사             |
| 251 | 의료       | 함께걸음 한의원 원장                  |
| 252 | 대중문화     | KBS 공채 15기 개그맨, 연극배우, 드라마 배우 |
| 253 | 전문직(교통)  | 서울도시철도공사                     |
| 254 | 해외활동     | 스위스회사 현지 근무, 유럽인의 비즈니스 문화    |
| 255 | 주민(재능)   | 꽃집운영, 토피어리 강사                |
| 256 | 주민(재능)   | 성공창업미용사 / 송혜어 대표             |
| 257 | 교육(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운영                     |
| 258 | 교육(어린이집) | 키즈사랑(어린이집원장)                 |
| 259 | 교육(어린이집) | 자녀사랑망(어린이집원장), 간호사경력 10년     |
| 260 | 의료       | 대학병원 간호사                     |
| 261 | 주민(재능)   | 안전한 평생직장 / 고와라머리방 대표         |
| 262 | 복지(상담)   | 도형상담을 통한 성격진단                |
| 263 | 경제(세무)   | 세무회계 well 사무장                |
| 264 | 의료(간호사)  | 대학병원 주임간호사                   |
| 265 | 의료(간호사)  | 대학병원 간호사                     |
| 266 | 의료(간호사)  | 대학병원 간호사                     |
| 267 | 해외활동     | 영국 웨일즈 출신 영국인, 영국문화체험        |
| 268 | 해외활동     | 미국 텍사스 대학 음악과 졸, 미국인 대학생활    |
| 269 | 의료       | 상계백병원 영상의학과                  |
| 270 | 교육(초등교사) | 혁신초등학교 교사, 공교육에서 희망 찾기       |
| 271 | 교육(초등교사) | 초등학교 교사, 교실에서 희망 찾기          |
| 272 | 문화(뮤지컬)  | 뮤지컬 스쿨강사                     |
| 273 | 문화(사진)   | 사진으로 배우는 삶의 이야기              |
| 274 | 주민(재능)   | 한지공예 만드는 법                   |
| 275 | 전문직(건축)  | hne기획 건축학교, 건축가 협회           |
| 276 | 교육(중등교사) | 따뜻하고 구수한 선생님                 |

|     |            |                                 |
|-----|------------|---------------------------------|
| 277 | 교사(디자이너)   | 전)광고기획사 근무, 실업고 디자인과 교사         |
| 278 | 정치(구의원)    | 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구의원     |
| 279 | 교육(고등교사)   | 여고 지리(사회) 선생님, 칭찬과 격려           |
| 280 | 교육(고등교사)   | 여고 국어 선생님, 청소년 진로 상담            |
| 281 | 교육(고등교사)   | 여고 윤리 선생님, 바른 신앙생활              |
| 282 | 교육(고등교사)   | 여고 수학 선생님, 수학의 재미난 세상           |
| 283 | 교육(고등교사)   | 여고 영어 선생님, 즐거운 영어공부, 미국유학       |
| 284 | 문화(수필가)    | 전)서울문원초등학교 교사, 시, 수필 쓰기         |
| 285 | 문화(시인)     | 자신감을 갖는 웅변, 시쓰기, 시인 등단하기        |
| 286 | 경제(컨설팅)    | 창업 및 재무분석                       |
| 287 | 경제(컨설팅)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은퇴 후 재무설계         |
| 288 | 대중문화(마술)   | 마술사 겸 마술강사                      |
| 289 | 주부(자녀교육)   | 3자녀 자기주도 학습지도                   |
| 290 | 경제(세무사)    | 삼일회계법인 세무사                      |
| 291 | 대중문화(분장)   | 은행원에서 공연 분장사로, '엄마를 부탁해' 등 참여   |
| 292 | 정치(시의원)    |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기                  |
| 293 | 문화(음악)     | 작곡, 성악 이야기                      |
| 294 | 교육(역사)     | 전)국사, 세계사 교사, 여행 전 미리 보는 세계문화   |
| 295 | 소수자(새터민)   | 북한사회와 문화, 새터민이 본 한국사회           |
| 296 | 복지(부부상담)   | 참부모학교 전문 강사, 소통하는 부부이야기         |
| 297 | 경제(컨설팅)    | 금융시장 기술적 분석 및 리스크 관리            |
| 298 | 학술(교수)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 299 | 전문직(공단)    | 건강보험공단지사장, 사회보장의 미래 국민 손에       |
| 300 | 전문직(IT)    | 청소년, 대학생 진로 상담, IT 스타트업 관련 상담   |
| 301 | 주민(대학생)    | 공학도의 대학생활체험기                    |
| 302 | 전문직(IT)    | 삼성전자본사 반도체 생산부 연구원              |
| 303 | 공무원(행정직)   | 늦깎이 공무원(도전하는 삶을 살자)             |
| 304 | 해외체험(국제기구) | 국제기구 근무 경험(장애인 단체), 여성장애인 연합    |
| 305 | 전문직(실내건축)  | 실내설계, 미술, 조소분야의 경향 및 진로         |
| 306 | 스포츠(헬스)    | 마음을 다스리는 다이어트 / 헬스 트레이너         |
| 307 | 전문직(의료)    | 임상연구 참여 피보험자 권익보호               |
| 308 | 해외활동(유학)   | 중·고·대학 미국 체류, 고려대 편입            |
| 309 | 문화(시인)     | 시 낭송과 시 치유, 하나예술원장              |
| 310 | 주민(대학생)    | 물리학을 배우고 싶은 후배들에게               |
| 311 | 주민(대학생)    | 중국 유학생생활과 중의약학                  |
| 312 | 전문직(연예)    | 영화 스텝들의 생활과 영화현장의 모습, 조감독, 콘티작가 |
| 313 | 봉사(장애인)    | 장애자녀의일반학교(초·중·고)생활경험 나눔         |
| 314 | 재능(연주)     | 피아노 연주-중년여성의 즐거운 취미생활           |
| 315 | 학술(체육)     | 스포츠과학 운동역학, 국군체육부대 이야기          |
| 316 | 학술(체육)     | 스포츠과학, 운동생리학, 트레이닝, 태능 선수촌 이야기  |

|     |            |                                  |
|-----|------------|----------------------------------|
| 317 | 학술(체육)     | 체육 측정 평가, 태능선수촌 이야기, 스포츠 영재 발굴   |
| 318 | 의료(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의 생활과 진료                    |
| 319 | 기업인(사회적기업) | 장애인 복지와 사회적 기업 / 그라나다센터 시설장      |
| 320 | 의료(간호사)    | 영혼을 위로하는 나이팅게일 메시지, 보건소 방문 간호사   |
| 321 | 복지/상담      | 기대감 있는 미래 설정하기(청소년 진로 상담)        |
| 322 | 정치(국회의원)   | 행정가로서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히다 / 19대 국회의원   |
| 323 | 전문직(의료)    | 인명구조사 직업 안내, 노인복지, 대한인명구조협회 회장   |
| 324 | 문화(작가)     | 책으로 아이와 행복해지기, 어린이책 이야기꾼         |
| 325 | 정치(국회의원)   | 한국의 IT산업, 청소년이 내일을 준비하는 노하우      |
| 326 | 학술(한국전쟁사)  | 한국전쟁이야기&전쟁기념관이야기                 |
| 327 | 주민(대학생)    | 경제학도가 되고 싶은 분들께, 경제학과 재학         |
| 328 | 학술(고전)     | 영어로 동양고전 읽기, 동양고전 15년 강의         |
| 329 | 주민(재능)     | 스트레스 해소와 두뇌활동을 촉진시키는 뜨개질 비법      |
| 330 | 학술(고전번역)   | 고전 번역가의 길, 고전 읽기 길안내, 한국고전번역원    |
| 331 | 공무원(교육청)   |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 되는 길, 대학편입 경험        |
| 332 | 주민(대학생)    | 기계자동차공학부 대학생, 교환학생 경험            |
| 333 | 주민(대학생)    | 대학생활 알차게 보내기 / 전자공학과 대학생         |
| 334 | 의료(한의사)    | 일체유심조의 경지를 꿈꾸는 한의사 / 신통한의원장      |
| 335 | 복지(복지사)    | 아동, 청소년 복지, 방과후 교실 / 노원교육복지센터 교사 |
| 336 | 복지(복지사)    | 아동, 청소년 복지, 방과후 교실 / 노원교육복지센터 교사 |
| 337 | 스포츠(생활체육)  | 배드민턴 생활 / 노원구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 338 | 복지/상담      | 부모 리더십, 부부 클리닉 / 교육학 박사, 교사      |
| 339 | 학술(IT교수)   | IT융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 MSDE 교수   |
| 340 | 경제(컨설팅)    | 글로벌 인재의 조건 / ㈜아이앤비 컨설팅 대표        |
| 341 | 사회운동(인권)   | 한국인권현주소 / 인권재단사람)상임이사            |
| 342 | 주부(직장맘)    | 기혼여성에게 직장의 중요성, 자기 정체감 / 영어 강사   |
| 343 | 복지(복지사)    | 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 공릉종합복지관장   |
| 344 | 복지(복지사)    | 복지관 이용하기,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 복지관 부장   |
| 345 | 주민(직장인)    | 대기업 직장인, 퇴직연금 컨설팅 / 생명보험사 본사 근무  |
| 346 | 공무원(경찰)    | 즐거움을 주는 경찰, 색소폰 연주/ 경찰 경력 23년    |
| 347 | 교육(유치원)    | 행복한 유치원 이야기, 유치원 교사되기 / 유치원 원장   |
| 348 | 주민(직장인)    | 자격증 11개 가진 소박한 직장인 / 시설관리        |
| 349 | 문화(화가)     | 좋은 그림 감상법, 화가의 꿈/ 한국미술협회 운영이사    |
| 350 | 문화(도예작가)   | 도예이야기, 미술작품 관람법, 도예공방 / 도예작가     |
| 351 | 교육(유치원교사)  | 유치원 교사가 하는 일, 아동 코칭 상담           |
| 352 | 교수(복지행정)   | 언론중재, 언론피해구제 / 전)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
| 353 | 봉사(간병)     | 투병 중인 오빠 간병이야기 / 사회복지대학원생(주부)    |
| 354 | 전문직(숲해설)   | 숲과 치유, 퇴직 후 제2인생 / 서울시 숲해설가      |
| 355 | 교육(중등교사)   | 전직 국어교사, 영어강사, 자녀 교육, 배려하는 대화습관  |
| 356 | 학술(체육)     | 국민 체력향상 프로그램, 태능선수촌 이야기 / 체육학 박사 |

|     |            |                                 |
|-----|------------|---------------------------------|
| 357 | 문화(디자인)    | 디자인, 금속공예 작가, 미술학원, 유치원 운영      |
| 358 | 전문(통번역사)   | 한중동시통역, 번역, 전시회 홍보통역            |
| 359 | 해외활동(호주취업) | 호주 워킹홀리데이 2년, 호주 3,000km 종단여행   |
| 360 | 전문(IT)     | 웹 / 모바일 기획, IT서비스 컨설팅           |
| 361 | 여가(바둑)     | 아마 바둑5단, 세계사 강의                 |
| 362 | 전문(도시농업)   | 도시농업, 생태 강사 /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 363 | 학술(경제)     | 직업능력개발, 고용창출 / 프랑크푸르트대 강사       |
| 364 | 전문(환경)     | 환경공학, 하수처리장 설치, 운영 회사 근무        |
| 365 | 전문(은행원)    | 은행 법무팀, 법대출신 취업진로, 은행의 다양한 업무   |
| 366 | 문화(작가)     | 동시읽기와 동시쓰기, 책속에서행복한아이들          |
| 367 | 교육(고등교사)   | 고등학생 진로진학 상담                    |
| 368 | 상담(청소년)    | 청소년 직업체험 상상이룸센터 팀장              |
| 369 | 전문직(미술)    |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미대 산업미술학과 진학상담     |
| 370 | 대중음악(작곡)   | 소통하는 음악, 실용음악 작곡가, 감독, 대학가요제 대상 |
| 371 | 주민(대학생)    | 문화콘텐츠 전공                        |
| 372 | 공무원(경찰)    | 청소년, 가정 범죄예방, 일제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활동  |
| 373 | 주민(대학생)    |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치, 종교, 사회운동 이해   |
| 374 | 공무원(관세청)   | 인천공항 세관 근무, 인천세관이야기, 일본 문화 배우기  |
| 375 | 주민(자영업)    | 문화가 있는 카페 창업 상담, 어르신 영어 봉사      |
| 376 | 해외활동       | 미국 샌프란시스코 생활, 불어 배우기            |
| 377 | 주민(중학생)    | 청심국제중 입학 및 학교생활                 |
| 378 | 주민(재능)     |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결혼과 연애 코칭           |
| 379 | 미술(사진)     | 길 위에서 만나는 사진                    |
| 380 | 주민(기술)     | 자동차 정비의 모든 것, 현대카센터             |
| 381 | 교육(초등교사)   | 교대진학, 초등 임용고시에 관한 모든 것          |
| 382 | 전문직(IT)    | IT소프트 엔지니어로 가는 길, 한국MS 근무       |
| 383 | 주민(재능)     | 기본 떡에서 퓨전 떡케익까지 떡케이크 만들기        |
| 348 | 문화(작가)     | 아동문학에 관심 있는 분 / 아동문학가           |
| 385 | 전문직(IT)    | IT를 통한 행복한 인생 꿈 설계              |
| 386 | 교사(초등)     | 초등 국악교육의 모든 것 / 초등 음악 교사        |
| 387 | 전문직(사서)    | 도서관과 저작권, 동국대 도서관 사서            |
| 388 | 학술(교수)     | 보건복지 전문. 미국유학, 복지학과 교수          |
| 389 | 해외(미국)     | 미국 은행근무, 세무와 재무 전문, 한국계 미국인     |
| 390 | 주민(대학생)    | 미국과 캐나다 유학생활, 고대편입학             |
| 391 | 문화(서예)     | 서예와 글씨, 서예대전 심사위원, 초대작가         |
| 392 | 문화(사진)     | 예술사진, 사진전 심사위원                  |
| 393 | 공무원(기상청)   | 기상예보와 관측, 기상청 공무원 이야기           |
| 394 | 복지(복지사)    |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북부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 395 | 교육(중등교사)   | 더불어 같이 나누는 교사 멘토링(동아리 지도 등)     |
| 396 | 상담(직장)     | 직장 및 조직생활 적응 상담                 |

|     |              |                                 |
|-----|--------------|---------------------------------|
| 397 | 문화(시인)       | 꿈꾸는 시인, 노원문인협회 회장               |
| 398 | 전문직(군인)      | 군인의 직업 / 일본 유학준비, 일본어 통역장교      |
| 399 | 주민(직장인)      | 연봉 1억 이상 만들기 위한 자기개발 전략         |
| 400 | 대중문화         | 예술과 컴퓨터의 만남 서울예술대 디지털아트학부 교수    |
| 401 | 대중문화(마술)     | 2007 세계거리문화페스티벌 일반부 우수 연기상      |
| 402 | 대중문화(모델)     | 전)위드모델에이전시 대표, 아르마테라피, 식이요법     |
| 403 | 해외(영사관)      | 홍콩 영사관 이야기, 중국경제                |
| 404 | 언론인(방송사)     | MBC 근무, 방송제작 경험, 고발전문 프로그램 제작   |
| 405 | 언론인(아나운서)    | MBC 근무, 방송 아나운서                 |
| 406 | 방송작가         | MBC 근무, 방송작가의 인생 멘토             |
| 407 | 전문(건축가)      |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온고당 대표, 건축가의 삶과 역할 |
| 408 | 전문(건축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출강, 건축과 문화         |
| 409 | 군인(학사장교)     | 경기북과학고 사감교사, 학사장교 이야기           |
| 410 | 경제/기업인(금융)   | KB국민공익재단 청소년 금융교육 강사, 은행원의 자세   |
| 411 | 교육(유치원교사)    | 병설유치원교사, 유치원 교사되는 길             |
| 412 | IT/인터넷/소프트웨어 | 한국HP공인 웹벤더, 웹에이전시 15년 근무        |
| 413 | 대중문화(작곡)     | 한양대, 동아방송예술대, 상명대 대학원, 국제예술대 교수 |
| 414 | 방송, 스포츠 기자   | KBS 스포츠 취재부 차장                  |
| 415 | 금융           | 도봉구 새마을금고                       |
| 416 | IT/인터넷/소프트웨어 | 컴퓨터 서버관리, 네트워크, DB 엔지니어         |
| 417 | 물리치료, 청소년 코칭 | 하트스캔 종합검진병원, 의료관광전문가            |
| 418 | 상담(취업)       | 경민대학교 취업강의, iDK진로연구소 연구위원       |
| 419 | 애니메이션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           |
| 420 | 정치인(구의원)     | 노원구의원                           |
| 421 | 정치인(구의원)     | 노원구의회 의원, 전원주택 건축설계 민원 및 인허가 상담 |
| 422 | 학술(인문학)      |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 423 | 전문직(주얼리디자인)  | 국민대 주얼리 디자인과 졸업                 |
| 424 | 문화(미술)       | 한국미협, 노원미협 회원                   |
| 425 | 문화(미술)       | 노원미협 회원(동양화)                    |
| 426 | 문화(탈춤)       | 봉산탈춤 이수자                        |
| 427 | 한의사          | 백세당한의원 대표, 경희대 한의과 외래교수         |
| 428 | 의료(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 429 | 교사(초등)       | 새내기 초등교사                        |
| 430 | 복지(직업상담)     | 북부고용센터 직업상담사                    |
| 431 | 주민(대학생)      | 기계설계과 재학생                       |
| 432 | 여행(북미)       | 영어강사, 북미여행                      |
| 433 | 전문(제과제빵)     | 파티쉐, 세계월드 페이스트리컵 초콜릿 부문 1위 수상   |
| 434 | 방송(현대차사내방송)  | CR미디어 제작                        |
| 435 | 방송(현대차사내방송)  | CR미디어, 현대자동차 그룹방송               |
| 436 | 전문(디자인)      | 서울문화고등학교 디자인과 교사                |

|     |              |                           |
|-----|--------------|---------------------------|
| 437 | 복지(복지도우미)    |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438 | 시민운동가(여성)    | 함께걸음의료생협이사, 한국여성의 전화      |
| 439 | 대중문화(풍물)     | 노원문화재연합회장, 풍물 25년 경력      |
| 440 | 사서교사         |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
| 441 | 유치원교사        | 유아 과학교육 전문교사              |
| 442 | 작가(시인)       | 시인/문학평론가, 사이버대 평생교육원 강사   |
| 443 | 스포츠/레저/여가    | 스포츠센터 지도자, 노원구민체육센터       |
| 444 | 지역신문/방송      | 노원문인협회 회원, 노원소식지, 노원신문 기자 |
| 445 | 동화작가         | 노원문인협회 회원, 글쓰기 지도         |
| 446 | 전문직(승무원)     | KAL 승무원                   |
| 447 | 주민(재능/기술)    | 한지공예                      |
| 448 | 대중문화(기타)     | 기타리스트, 7080 노년문화 준비       |
| 449 | 전문직(광고)      | con커뮤니케이션 광고대행사 대표        |
| 450 | 전문직(음식)      | 바리스타                      |
| 451 | 주민(재능)       | 꽃차 만들기와 시낭송, 치유           |
| 452 | 문화/예술(미술)    | 서양미술 감상하기, 미술교사           |
| 453 | 해외활동(일본가이드)  | 일본어 자격취득방법, 일본가이드         |
| 454 | 언론(방송사)      | 방송국PD, 다큐, 문화, 예술, 카메라    |
| 455 | 복지(복지사)      | 장애인 생활시설 사무국장             |
| 456 | 문화/예술인       | 정신수양으로서 서예, 노원문인협회 부회장    |
| 457 | 주민(대학생)      | 인생은 진행 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   |
| 458 | IT/인터넷/소프트웨어 | SK hynix 모바일 연구개발센터 근무    |
| 459 | 해외(미국 서부)    | 미국 어학연수와 서부여행             |
| 460 | 의료(간호사)      | 대학병원 간호사                  |
| 461 | 정치(정당인)      | 정치입문, 선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    |
| 462 | 주민(대학생)      | KT&G 상상원정대, 일본 문화기행 다수    |
| 463 | 해외(워킹홀리데이)   | 호주 워킹홀리데이                 |
| 464 | 전문직(요리)      | 특급호텔요리사, 청도국제요리대회 금상수상    |
| 465 | 대중문화(피규어)    | 촉망받는 20대 피규어 작가           |
| 466 | IT/인터넷/소프트웨어 | 구글, 오라클 근무                |
| 467 | 학술(사회과학)     |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대책, 경영학과 교수  |
| 468 | 건강(연극치유)     | 연극을 통한 치유성장               |
| 469 | 건강(미술치료)     | 미술치료사, 감성코칭, 마을활동가        |
| 470 | 대중문화(연극)     | 극단 '즐거운 사람들' 대표           |
| 471 | 주민(재능)       | 예쁜 손글씨, 두루모아공예협동조합        |
| 472 | 주민(재능)       | 초등학교 토탈공예 방과후 강사          |
| 473 | 주민(재능)       | 공예강사, 두루모아공예협동조합          |
| 474 | 주민(재능)       | 토탈공예, 요리, 품아트             |
| 475 | 금융(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13년 근무경험, 예쁜손글씨     |
| 476 | 주민(재능)       | 하모니카 강사                   |

|     |            |                         |
|-----|------------|-------------------------|
| 477 | 건강(치유)     | 치유와 성장, 치유와 성장 연구소 소장   |
| 478 | 건강(요가)     | 요가와 짜즈 강사               |
| 479 | 건강(치유)     | 놀이치료, 브레인 트레이닝          |
| 480 | 전문직(디자이너)  | 별난공방 매니저(주얼리 디자이너)      |
| 481 | 주민(대학생)    | 여행, 여학연수                |
| 482 | 공무원        | 동대문구청 토목과               |
| 483 | 상담         | 상담사, 미술치료, 미디어치료        |
| 484 | 해외활동       | 온라인 판매, 호텔경영학 전공        |
| 485 | 봉사(학교봉사)   | 학부모봉사활동, 학생집단상담         |
| 486 | 학술(문헌정보학)  | 도서관, 문헌정보학 교수           |
| 487 | 상담(청소년)    | 어린이, 청소년 상담             |
| 488 | 교육(고등교사)   | 학습부진아 진로지도              |
| 489 | 언론인(기자,건강) | 헬스조선 편집장, 웃음보따리 동호회 회장  |
| 490 | 대중문화(만화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악동이' 연재 |
| 491 | 해외(미국유학)   | 고려대 생명과학부 편입            |
| 492 | 해외(영국유학)   | 고려대 생명과학부 편입            |
| 493 | 전문직(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 미술심리             |
| 494 | 봉사(공공기관)   | 도서관 자원활동가, 청소년지도사       |
| 495 | 상담봉사       | 생생충전소, 북부보호관찰소 상담       |
| 496 | 웃음치료       | 산후우울증 극복, 자가치유          |
| 497 | 전문(군인)     | 해군본부 준사관(고졸에서 석사가 되기까지) |
| 498 | 상담봉사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생생충전소 상담활동가 |
| 499 | 건강(숲 치유)   | 치유연구소 이룸나무 연구원          |
| 500 | 상담봉사(자살예방) | <내려놓기>블로그 운영, 자가치유 성공사례 |
| 501 | 상담봉사       | 청소년상담활동가                |
| 502 | 상담봉사       | 가족소통상담활동가               |



사 례 발 표  
2

공감의 소통과 관계를 회복하는 마을도서관  
**숨쉬는도서관**





## 공감의 소통과 관계를 회복하는 마을도서관 숨쉬는도서관

박은주 숨쉬는도서관

숨쉬는도서관은 마포 민중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이다. 민중의집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가꾸고 서로 나눔으로써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 만든 주민들의 자치공간이자 공동체이다. 민중의집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대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에서 부족한 것을 함께 채우고 필요한 것을 나누는 생활협동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숨쉬는도서관은 민중의집의 생활협동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난 3년간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마포 지역의 개인들의 삶의 이야기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타인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편견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모색하고 연대하고자 한다.

숨쉬는도서관의 사람책 독서는 소통이 단절된 사회에서 멘토링, 상담, 강의와는 다른 형태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다. 마을의 다양한 세대와 이웃들의 이야기가 만나 사회적 문제와 현재의 우리 삶의 화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독자들에게는 직업과 진로선택의 만남을 넘어 삶의 이야기를 통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만남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재능기부 활동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책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우리와 닮은 평범한 사람들,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 편견의 대상인 우리의 이웃들이다. 현재 숨쉬는도서관에는 영화감독, 로드스쿨러, 만화가, 미혼모, 마을활동가, 공동주택거주자, 구의원, 대기업 회사원, 출판사 대표, 목공방 주인, 자전거 공방 운영자, 귀농부부, 문화기획자, 게이, 맥주매니저, 사회복지사, 교사, 병역거부

자, 입양인, 인디밴드, 풀무전공부 학생 등 70여권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책들이 함께 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는 거대한 글로벌 시대에서 또 한편으로 개별화되고 있다. 상호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돌봄과 협동의 관계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동체성은 무너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는 ‘사람책’과 타인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독자’의 만남은 공감과 협동의 관계망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개인들이 지닌 지혜와 경험은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TV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주제로 소비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는 지역의 이웃들과 만나 공감하고 협동하는 경험이 아닐까?

## 1. 숨쉬는도서관 운영 방식

### (1) 사람책 서가 운영

- 새로운 만남과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책의 이야기 재능기부
- 전문 분야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사람책
- 사람책 소개자료를 사람책들이 직접 작성해서 독자들에게 제공 (humanbooks.net\_사람책 찾아보기에서 사람책 소개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숨쉬는도서관 사서단이 새로운 사람책을 발굴, 인터뷰를 진행, 사람책을 출판

### (2) 대출이벤트 진행방식

- 비정기적인 대출 이벤트 진행
- 사람책 소개자료를 보고 사전 온라인 접수, 선착순 마감
- 참가비는 무료 (사람책의 재능기부와 독자들의 무료 참여로 순수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사람책 1명당 3~5명의 독자가 함께 만나 정해진 장소와 시간동안 대화
- 대출 시간은 60분이며 독서시간 이후에 독후활동 진행

### (3) 사람책을 읽는 방법

- 사람책과 함께 참여하는 다른 독자들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 독자들은 사람책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읽을 수 있고, 사람책은 자신이 대답하고 싶지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사람책들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만지지 말아주세요.
- 대출한 사람책을 훼손하지 말고 빌렸을 때의 상태 그대로 반납해주세요.
- 대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사람책의 연락처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책과 독자가 서로 동의하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4) 기획단 및 사서단 운영

- 기획단 운영: 특정 주제의 대출 이벤트를 진행할 때, 주제에 관심을 가진 기획단 모집
- 기획단은 주제에 따른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 대출이벤트 기획, 사람책 목록을 선정, 사람책 발굴, 대출이벤트를 진행함.
- 기획단 활동 이후에는 사서단으로도 활동.
- 사서워크숍을 통해서도 사서단 모집
- 사서단 활동: 숨쉬는도서관의 멤버십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 사람책 발굴, 인터뷰, 소개글 작성, 대출 이벤트 기획, 진행.
- 향후 기획단, 사서단의 용어 통합 필요

#### (5)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마을도서관, 숨쉬는도서관

- 민중의집의 운영위원, 회원/ 지역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숨쉬는도서관
- 주제에 따라 지역 단체와 공동주최:  
청소년 진로를 주제로 대출 이벤트 (교육공동체 벗, 망원청소년 독서실, 공간 민들레)  
인권을 주제로 대출 이벤트 (인권재단 사람)  
미혼모를 주제로 대출 이벤트 (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
- 휴먼라이브러리라는 형태의 지역사업을 지역단체와 공동주최:  
예산 지원 및 공간, 홍보, 인력 등의 지역 인프라 제공  
마포문화재단과 함께 '한 달에 한번 숨쉬는도서관' 진행  
와우북페스티벌 함께 '와우! 숨쉬는도서관' 진행
- 지역 단체의 회원 및 활동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책 섭외가 가능
- 단체의 활동과 다양한 주제를 사람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 2. 사람책 대출 이벤트

### (1) 말걸기: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 주제, 독자층을 정하고 대출이벤트 기획

#### “청소년 직업과 진로, 삶을 묻다” (2011. 05/ 성미산학교)

- 직업과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존 진로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함
-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기획
- 성미산 마을 축제 참여
- 지역 단체인 교육공동체 벗, 망원청소년 도서관, 공간 민들레와 함께 기획

■ 대출사람책 목록: 임찬익(영화감독), 황연주(이든다자인 대표, 나무와늘보), 박정은(산티출판사 대표), 지음(빈집, 빈가게), 박병은(트래블러스맵 여행사부장), 오진아(마포구 구의원), 이경은(해피빈재단 간사), 소복이(만화가), 박미정(리얼와이즈컨설팅, 재무상담사), 이상대 (신서중학교 교사), 나혜진(마포청소년수련관 심리상담가)



#### “청춘에게 탄지를 권한다” (2011. 09/ 살롱 드 마랑)

‘88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들을 독자로 삼았다. 청년은 본래 젊음과 청춘, 도전과 열정,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한다. 하지만 현재는 경쟁과 취업, 빈곤의 굴레에 허덕이는 무표정의 주체로 그려지기 다반사다. 청년들을 기죽이고 불안으로 내모는 사회적 여건에 대한 질타와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취업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개개인의 ‘길 찾기’, ‘꿈 찾기’를 돕는 일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일/놀이/결혼 등 일상의 이야기, 인생의 참맛을 일깨워줄 사람책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들을 위로하고, 자기계발과 경쟁이라는 강요된 답안지에서 벗어나 ‘탄 짓’을 상상해볼 수 있는 만남을 기획함.

- 2030 독자를 대상으로 기획
- 지역 단체인 교육공동체 벗, 망원청소년 도서관, 공간 민들레와 함께 기획

■ **대출사람책 목록:** 임찬익(영화감독), 황연주(나무와늘보), 박정은(산티출판사 대표), 오진아(마포구의원), 지음(빈집), 박미정(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생활경제상담사), 이상대(교사), 소복이(만화가), 유창복(성미산마을극장대표), 시원(라자요가교실, 작가), 공찬현(여행작가지망생), 안연정(1/4 HOUSE 대표, 문화로놀이짱), 이광익(가제트공방 대표), 이은영(공간릴라), 김두범(자전거공방 두부공)



### “20대 사람책 페스티벌\_불안과 사이 좋게 지내기” (2012. 03)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20대 역시 자기계발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불안, 관계에서 오는 불안 등 불안 투성이 현재를 살고 있다. 이 불안들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불안을 해소하면 이어서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같은 상황에 나만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잠깐 마음 속 힘들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같거나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생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면 불안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사이 좋게 지내며 내 삶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20대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책과 독자들을 초대하고 대출 이벤트를 개최함.

- 20대 기획단 운영 (2012. 01~03)

인터뷰 웹진 '더 힐'과 함께 '20대 불안과 친해지기'에 대한 워크숍 진행, “교육, 직업, 경제, 사랑, 미래”란 주제 워크숍, 대출 이벤트 기획 및 진행, 이후 사서단 활동

■ **대출사람책 목록:** 최빛나(그래픽 디자이너), 김길화(아름다운가게 간사), 문성도(수의사), 소복이(만화가), 김선문(출판문화기획자),

민봉기(치과전문의/ 다음카페 '민봉기의 건프라월드' 운영자),  
 주하아린(사진가, 소프트웨어 기획자), 최명훈(맥주매니저), 이보람(디자이너),  
 이상배(독립의류 라클릭 디렉터), 우정호(인디밴드 뮤지션),  
 주나라(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HRD담당자/강사),  
 정효민('보편적인 여행잡지' 웹매거진 제작), 조수민(인디밴드 뮤지션),  
 박미정('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생활경제상담사), 유한집(구름집연구소 소장),  
 광봉재(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 PD/ 문탁네트워크 운영위원),  
 천소현(여행작가)



## (2) 지역단체와 함께: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청소년, 인권, 미혼모 등의 주제로 지역 단체와 함께 대출 이벤트 기획

“사람책, 길위에서 길을 찾는 청소년들을 만나다” (2012. 05/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 요즘 진로교육은 직업중심의 진학 및 취업교육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진로 교육이라는 것은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원리를 고민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숨쉬는도서관은 '길위에서 길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책에서는 읽을 수 없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삶의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 지에 알리고자 함.
- 공간 민들레 "길위에서 길을 찾다: 청소년의 자기 길찾기 프로젝트"의 '사람책 읽기' 프로그램으로 공동기획 진행.

■ **대출사람책 목록:** 임찬익(영화감독), 황연주(늘보공방), 소복이(만화가), 박정은(산티출판사 대표),  
 김두범(자전거공방 두부공), 최명훈(맥주매니저), 김선문(출판문화기획자),  
 최인용(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조혜민/정수희(OO은대학/마포문화재단)



## “사람책콘서트\_결혼을 안해도 나는 엄마다” (2012. 11/ 민중의집)

- 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와 공동 기획 진행
- 사회적 편견의 대상인 미혼모 분들을 모시고 독자와 사람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북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
- 미혼모의 사람책 활동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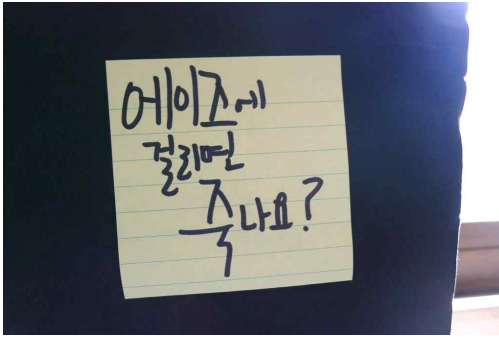
■ 대출사람책 목록: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



## “인권에 대해서 말걸기\_내안의 편견과 마주앉기” (2013. 07 / 인권재단 사람)

- 인권재단 사람과 공동 기획 진행
- 사회적 차별의 대상, 소수자를 사람책으로 모시고 독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자 함. ‘인권’은 어렵고 까다롭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편견과 차별의 잣대들의 실재를 만나 공감의 대화를 나누면 인권에 대해서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음.

■ 대출사람책 목록: 최정민(병역거부운동, 전쟁없는세상), 신순희(미혼모, 바리스타), 한가람(게이, 변호사), 윤가브리엘(HIV/AIDS 감염인, 인권활동가), 이기규(인권교육가, 교사), 조혜순(비정규직 여성감정노동자, 다산콜센터), 정아용(정신보건\_알코올중독, 카프치로 공동체 감나무집), 조승화(빈곤, 동자동사랑방), Shannon Heit (입양인, 대학원생)



### (3) 지역단체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기!

#### 지역 문화재단, 축제와 함께 대출 이벤트 기획

##### “한 달에 한번 숨쉬는도서관” (2012. 09~12 월 1회 / 마포문화재단)

- 마포문화재단과 함께 한 한 달에 한번 숨쉬는도서관을 통해서 그동안 인력과 역량의 문제로 한정된 독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진행했던 대출 이벤트를 18세 이상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함
- 숨쉬는도서관의 일상성과 지역성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 지역에 휴먼라이브러리를 알리는데 기여함. 새로운 독자층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고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독자 참여율을 확인함으로써 잠재적 참여자들의 다양성과 욕구들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마포문화재단에서 공간, 홍보, 예산 지원함.

#### ■ 대출 사람책 목록: 기존 사람책 목록 활용



## “와우! 숨쉬는도서관\_내 삶을 바꾼 질문들” (2013. 10. 5~6 / 서교예술실험센터)

- 마포 지역의 축제인 '와우북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
- 2014년 와우북 페스티벌의 주제 "만인을 위한 인문학"으로 대출 이벤트 기획, '삶으로 듣는 인문학: 내 삶을 바꾼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진행
-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공간, 인력, 홍보 등을 지원함.
- 와우! 숨쉬는도서관 기획단 모집 (2013. 8 ~ 10), 워크숍 진행, 대출 이벤트 기획, 진행

■ **대출사람책 목록:** 최현숙(여성주의 구술생애사 작업), 은유(글쓰는 사람, 수유너머R 연구원), 김주혜(이야기꾼), 마수경(풀무환경농업 전공부 학생), 김선문(출판문화기획자), 김두범(자전거공방 두부공), 김용진(뮤지션, 월간싱글레어 편집장, 신촌콘서트 프로듀서), 최형숙(미혼모,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 최정민(전재없는 세상), 김우(마을활동가), 하얼과페달(자급자족 귀농부부), 단편선(뮤지션, 자립음악생산협동조합)



## (4) 새로운 사람책 라이브러리 구성 : 사람책+공간읽기, 할머니 인생 레시피

### “사월의 동네마실\_사람책+공간 읽기” (2013. 04 / 마을 곳곳)

- 사람책의 공간을 찾아가서 사람책을 만남
-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책들로 목록 기획
- 사람책의 공간을 찾아가면서 사람책이 자신이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대출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람책 목록:** 김두범(자전거공방장)+자전거공방 두부공,  
이상배(독립의류브랜드 디렉터)+라클리크 쇼룸,  
유경희(생기랑마음달풀 소장)+상담&교육연구소 생기랑마음달풀,  
황연주(나무와늘보 목공방장)+나무와늘보 목공방,  
박종숙(공동주택에 사는 이웃)+공동주택 소행주,

황윤지(씨앗들협동조합 대표)+옥상텃밭 '즐거운텃밭',  
가제트와느리(빈틈있는 사람책묵음)+공터



### 2013. 12 “할머니의 인생 레시피” 북콘서트 (2013. 12/ 민중의집)

- 세대공감 프로젝트로 할머니 사람책에 대해서 시도해 봄
- '할머니 인생 레시피' 기획단 모집, 워크숍 진행, 북콘서트 기획, 진행
- 기획단은 음식을 키워드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인터뷰 진행, 발표
- 북콘서트 형식으로 할머니와 마을 청년들이 만남



### (5) 워크숍 진행

#### ■ 20대 사람책 페스티벌 기획단 워크숍 (2012. 1~3)

- 20대의 '불안과 친해지기' 기획단 모집(20~29세의 20대)
- 인터뷰 웹진 '더 힐'과 함께 20대의 “교육, 직업, 경제, 사랑, 미래”에 대한 주제워크숍
- 전체 기획, 주제에 따른 조별 사람책 섭외, 이벤트 진행
- 일부는 사서단으로 지속적인 활동



## ■ 사람책되기 워크숍 및 사람책 출판 발표회 (2012, 5~6)

- 사람책 활동 제안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할 이야기가 없어?', '내가 사람책 이?' 라는 반응을 보인다.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획한 워크숍
- '한권의 책으로 데뷔해 볼까?' 자신의 이야기를 손으로 만든 스토리북으로 만들어 보기
- 워크숍 내용
  - 1강 평범한 나, 어떤 사람인가?\_콜라주로 나를 표현해보기
  - 2강 인생유전, 찰나를 찾아서\_사진으로 스토리 구성하기
  - 3강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 책으로 태어나기\_책제목, 목차, 텍스트 작성하기
  - 4강~5강 세상에서 하나에 없는 나, 손으로 책 만들기
  - 6강 나만의 스토리북 출판기념회



## ■ 숨쉬는도서관 사서 워크숍 (2012. 10 ~ 11)

- 숨쉬는도서관을 함께 운영할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
- 숨쉬는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사서단 모집
  - "정보를 공유하고 재능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 글을 쓰고 사진, 영상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 워크숍 참여 후 사서단 활동

- 워크숍 내용

**1강** 누구나 한권의 사람책이 될 수 있다! 나도 사람책?

: 숨쉬는도서관에 대한 이해 / 나의 이야기를 사람책으로 출판해보기

**2강** 함께 읽는 사람책 1

: 숨쉬는도서관 사람책 읽기(박정은, 소복이, 황연주, 이상배) / 사람책 활동 이해하기

**3강**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책,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책?

: 사람책 이야기 발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책 섭외 및 사람책 콘텐츠

**4강** 함께 읽는 사람책 2

: 지혜를 나누는 만남 '위즈덤' 한상협 대표

**5강**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책,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책?

: 사람책 출판 발표시간

**6강** 숨쉬는도서관 대출 이벤트 운영해보기

: 숨쉬는도서관 진행, 독자로 참여



■ 할머니의 인생 레시피 기획단 워크숍 (2013. 11~12)

-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사람책으로 발굴해내기 위한 사서단의 역량강화 워크숍
- 세대공감을 위한 사람책 발굴을 위해서 2030의 여성들이 할머니들을 만나 인터뷰 진행
- 할머니라는 새로운 사람책 발굴을 시도
- 할머니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진행
- 워크숍 내용

**1강** 여성주의 구술사에 대한 이해 (최현숙: 여성주의 구술사 활동)

**2강** 인터뷰 글쓰기에 대한 이해 (은유: 글쓰기 강사)

**3강~4강** 인터뷰, 인터뷰 글쓰기

**5강** '할머니 인생 레시피' 사람책 출판 기념회



숨쉬는도서관 [humanbooks.net](http://humanbooks.net) | 민중의집 [www.peoplehouse.net](http://www.peoplehouse.net)



사 례 발 표  
3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서울숲사랑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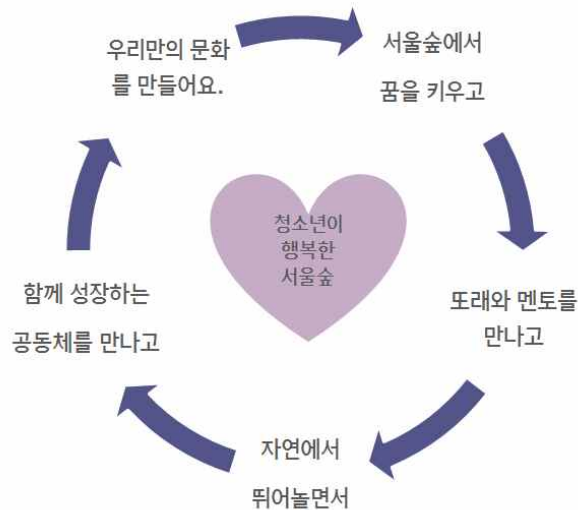
청소년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한대부고)

## 1. 서울숲 청소년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

### (1) 배경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는 청소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서울숲에서 진행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꿈으로 고민 중인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사는 삶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보는 용기와 희망을 실어주자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꿈, 열정이라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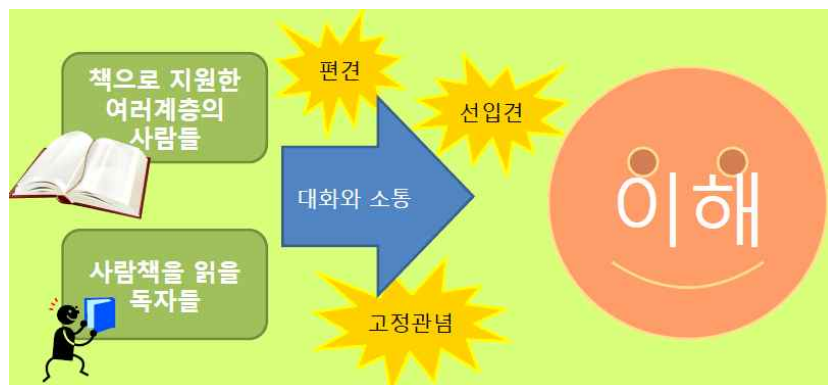
제1회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는 청소년플레이메이커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독자로 모인 청소년들 중 한대부고 학생들이 큰 감명을 받고 기획단으로 다시 모이게 되도 접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2회 리빙라이브러리부터 거의 모든 활동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보완해가며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화를 통해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2)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준비와 진행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는 청소년 기획단이 주체가 되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리빙라이브러리 진행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기획단 모집입니다. 1년에 2번 동안 실시되며 시기는 봄과 가을로 계획을 하고 정확한 날짜나 주제는 기획단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고 정하게 됩니다.

기획단으로 모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었고, 서울숲에서 활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였습니다. 한대부고의 Teens Seoul 서브동아리가 서울숲의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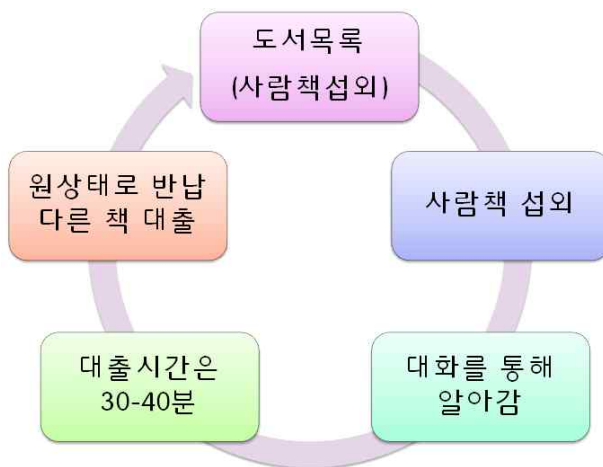
- ① **기획단 모집:** 선발기준이나 방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모집 전에 올해 단장 선출.
- ② **서울숲과 만남(준비):** 올해 활동하게 되는 기획단학생들과 서울숲의 청소년프로그램 담당 코디네이터와 만나서 인사 및 리빙라이브러리에 대해 내용을 나눈 후 작년과 다른

곳에서 진행되었던 사례를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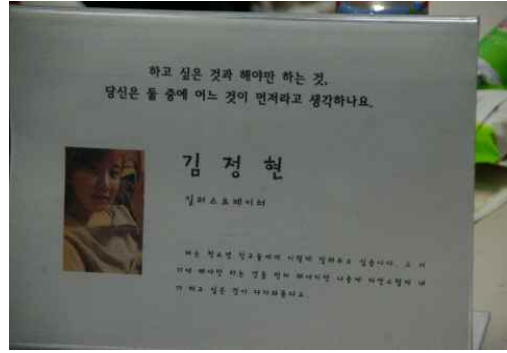
- ③ **리빙라이브러리 기획:** 만나고 싶은 사람책의 목록을 정하고 리빙라이브러리의 제목을 정합니다. 제목에 따라 리빙라이브러리의 프로그램이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의 메시지와 그 시기활동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섭외팀, 홍보팀, 후원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 \* 섭외팀: 사람책 섭외-섭외장 작성, 연락하기, 사람책 한줄 키워드
- \* 홍보팀: 홍보포스터 및 안내문 제작, 독자 섭외, 영상제작
- \* 후원팀: 필요 물품 체크 및 후원 모색, 카페관리 및 설문지 작성, 후기 작성
- \* 공 통: 당일 진행 및 후기작업, 방학기간 오프라인 홍보활동
- \* 서울숲: 학교에 협조 요청 및 홍보, 장소협의, 기획단 준비활동 코디네이터로서 역할

- ④ **리빙라이브러리 진행:** 진행 1일전 서울숲에서 당일진행에 필요한 세팅 작업을 하고 당일 행사장 안내-사람책과 독자 OT-테이블별대화가 진행되며 사람책과 독자의 후기 작성 및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 리빙라이브러리 일정<br>(제6회 어울림) |            |
|-------------------------|------------|
| 시간                      | 내용         |
| 13:30~13:45             | 사람책, 독자 OT |
| 13:45~14:00             | 리빙라이브러리 열기 |
| 14:00~14:45             | 1차 테이블     |
| 14:45~15:00             | 1차 어울림시간   |
| 15:00~15:10             | 1차 휴식      |
| 15:10~15:55             | 2차 테이블     |
| 15:55~16:10             | 2차 어울림시간   |
| 16:10~16:30             | 2차 휴식      |
| 16:30~17:00             | 마무리 / 단체사진 |



1. 독자와 사람책 출석체크&OT  
→ 사람책 목록을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책을 정함 (단, 하나의 테이블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획단이 조정을 합니다)
2. 테이블에는 사람책의 한줄 키워드와 다과가 함께 셋팅되어 있습니다.



3. 사람책과의 즐거운 대화시간이 2번 진행됩니다. 테이블이 바뀌는 쉬는 시간에 소감을 적습니다.
4. 독자와 사람책이 서로 소감을 나누고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기획단의 인사와 단체사진으로 마무리됩니다.

- \* 사람책은 독자를 선택할 수 없으며, 사람책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합니다.
- \* 독자는 욕설이나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책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OT때 안내)
- \* 전체적인 일정은 청소년의 교내일정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정적이지 않고 활동일정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학교  | 시업식                                                                                                                                                              |    | 중간고사     |     | 기말고사 |      |    | 중간고사     |     | 기말고사   |
| 기획단 | 기획단모집                                                                                                                                                            | 준비 | 리빙 라이브러리 | 마무리 | 기획   | 섭외홍보 | 준비 | 리빙 라이브러리 | 마무리 | 1년 마무리 |
| 1주  | 기획단 모집→서울숲과 오리엔테이션→행사 기획→사람책 목록, 제목 정하기→역할분담하기(섭외팀: 사람책 섭외안내장 만들기, 섭외연락/ 홍보팀: 행사 포스터 디자인/ 후원팀: 학교 지원 및 필요물품 후원제안)→중간 점검→오프라인 및 온라인 홍보활동→1일전 행사준비 및 셋팅→리빙라이브러리 진행 |    |          |     |      |      |    |          |     |        |

#### ▲시기별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과정

### (3) 서울숲 청소년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 활동

#### ① 2013년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 학생들 명단

| No. | 성명       | 담당   | 학년 | No. | 성명  | 담당    | 학년 |
|-----|----------|------|----|-----|-----|-------|----|
| 1   | 홍지선(단장)  | 단장   | 2  | 9   | 이서현 | 섭외팀장  | 2  |
| 2   | 정혜연(부단장) | 후원   | 2  | 10  | 유수빈 | 섭외    | 2  |
| 3   | 김단비      | 홍보팀장 | 2  | 11  | 황다인 | 섭외    | 2  |
| 4   | 양은지      | 홍보   | 2  | 12  | 임경  | 섭외    | 1  |
| 5   | 김소연      | 홍보   | 2  | 13  | 김수현 | 섭외    | 1  |
| 6   | 조예린      | 홍보   | 1  | 14  | 장소영 | 섭외,홍보 | 2  |
| 7   | 황세연      | 홍보   | 1  | 15  | 엄유진 | 후원팀장  | 2  |
| 8   | 김동현      | 홍보   | 1  |     |     |       |    |

#### ② 리빙라이브러리 청소년 기획단 활동모습(6회 리빙라이브러리)



▲8월 서울숲에서 제6회 리빙라이브러리 홍보활동



▲9월 서울숲에서의 중간점검

▲10월 학교에서의 중간점검



▲11월 제6회 <어울림> 진행 테이블



▲기획단 단체사진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은 모집부터 준비, 기획, 진행까지 모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단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정은 바로 사람책 섭외와 홍보입니다. 리빙라이브러리가 아직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사람책 섭외를 위해 연락을 하면 행사에 대한 내용전달이 분명하게 되지 않고 학생이라는 신분의 장단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에 2회보다 더 자주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작게나마 교내 또는 서울숲에서 자체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4)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의 앞으로의 방향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는 앞으로도 청소년에서 청년에 이르는 기획단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청년에서 중장년에 이르는 사람책과 청소년 독자들이 만나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청소년 기획단이 모델이 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리빙라이브러리를 시도하고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응답하라 “리빙라이브러리”



▲2011년 제1회 진행 모습

리빙라이브러리가 무엇인가요?

Living Library는 2000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의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에 참여한 청소년  
독자들은 서울숲 잔디밭에 펼쳐진 야외도서관에서 종이로 된 책이 아닌  
사람책을 만났습니다. 내가 미래에 일하고 싶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답니다.

멀리 덴마크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서울숲에서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되면서 청소년 플레이메이커가 서울숲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봉구에서 마을신문을 만드시는 이창림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소통과 만남  
이 단절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라 생각했고, 서울숲이라는 자연  
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 독자에서 서울숲 기획단으로

2011년 여름, 제1회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에 독자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그해 가을,  
기획단 활동을 신청하여 참여하였고, 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주변의 관심 있는 친구  
들과 함께 학교에서는 서브동아리를 결성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  
였습니다.



▲제2회 <Fall in living library>: 흐리고 추운날씨도 울고 간 이곳의 뜨거운 열기!



▲독자에서 서울숲 활동가로 왼쪽에 독자로 참여했던 정주원, 김민아학생은 청소년 기자단과 도서관의 숲속영어동화이야기 프로그램 참여 및 진행, 오른쪽 홍성현 학생은 서울숲 실습생으로 활동

## ■ 서울숲 기획단에서 꿈꾸는 청소년으로

**2012년에는** 기획단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기획단 모집부터 진행하여 서울숲과 소통하며 1년의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2011년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던 한해였다면, 2012년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좀 더 주체적으로 걷고 바쁘게 달리고 아주 크게 성장했던 한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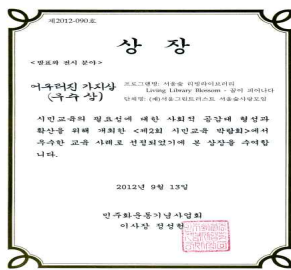
서울숲에서는 제3회<꿈이 피어나다>, 제4회 <다독다독>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숲 밖에서의 활동도 활발했는데요~ 그건 바로 9월에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제2회 시민교육박람회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본선에서 우수상(어우러진 가지상)을 받았으며, 11월에 녹색공유도시 선포식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아직도 기획단 학생들이 함께 불렀던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제3회 <꿈이 피어나다>에서 사람책, 독자와 함께 / 진행모습



▲제4회 <다독다독>에서 독자와 사람책 / '꿈꾸지 않으면' 노래를 선물하는 모습



▲9월 시민교육박람회에서

▲11월 녹색공유도시 선포식에  
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 ■ 꿈꾸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다

2013년은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은 서울숲의 청소년 커뮤니티의 모델로써 새로운 출발을 했으며, 서울숲사랑모임과 함께 협업하는 청소년커뮤니티단체로써 성장하였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 아이들과 함께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말했던 내용이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이었습니다.

작년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2학년이 되어 후배들을 모집하여 서울숲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단장인 지선이, 부단장인 혜연이, 홍보팀장인 단비, 실행팀인 수빈이, 서현이, 소영이, 다인이, 디자인담당 은지, 후기및 설문지 담당인 소연이 유진이까지~!! 그리고 1학년 새내기인 동현, 경이, 수현이, 예린이, 세연이, 광열이까지 모두 16명의 멤버가 함께 하였습니다.

## ■ 서울숲에서 함께한 사람책

| 회                                         | No. | 이름   | 한 줄 키워드                                           |
|-------------------------------------------|-----|------|---------------------------------------------------|
| 1회<br>Living library<br>in<br>seoulforest | 1   | 이창림  | 생활정치 이야기                                          |
|                                           | 2   | 이혜원  | 넘어선다는것에 대하여                                       |
|                                           | 3   | 공 현  | 청소년 인권운동                                          |
|                                           | 4   | 김지수  | 내 심장을 뛰게하는일                                       |
|                                           | 5   | 채 일  | 발상의 전환 “황사로 돈벌기”                                  |
|                                           | 6   | 뚝 코  | 탈학교, 비주류로 살기                                      |
|                                           | 7   | 오강임  | 공원의 문화프로그램                                        |
|                                           | 8   | 김인호  | 숲속학교만들기                                           |
|                                           | 9   | 안이영노 | 개성있는 어른이 되기위해 준비해야 할 것                            |
|                                           | 10  | 최보인  | 금융&기업의 인사관리 및 사회공헌                                |
|                                           | 11  | 하지원  | 우리가 만드는 에코라이프 / 내꿈을 디자인하자!                        |
| 2회<br>Fall in living<br>library           | 12  | 김미순  |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란 직업에 대하여                            |
|                                           | 13  | 안신권  | 북한과통일 그리고 탈북청소년에 대하여                              |
|                                           | 14  | 최보인  | Being a catalyst                                  |
|                                           | 15  | 안남순  | 경찰관이 직업입니다                                        |
|                                           | 16  | 김지수  | 입 닥치고, 공부?                                        |
|                                           | 17  | 마웅저  |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
|                                           | 18  | 구현지  | 잡지 에디터는 어떤 직업인가?                                  |
|                                           | 19  | 박영록  | 카메라는 나를 바꿀 수 있다!                                  |
|                                           | 20  | 이환우  | 꿈을 품고 사는 일                                        |
|                                           | 21  | 신동엽  | 시간은 꿈을 배신하지 않는다.                                  |
|                                           | 22  | 김남희  |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내는 것이 아니라<br>'두려움에도 불구하고'내는 것이 용기다. |
|                                           | 23  | 신명환  | 창작과 문화                                            |
|                                           | 24  | 이강오  | 인생은 여행                                            |
|                                           | 25  | 구동환  | 포기하는 방법                                           |
|                                           | 26  | 정석   | 견고싶은도시, 살기좋은 동네                                   |

|                                 |    |     |                                                 |
|---------------------------------|----|-----|-------------------------------------------------|
|                                 | 27 | 신동화 | 왜 우리는 황무지가 필요한가?                                |
|                                 | 28 | 이중구 | 북한문제의 해법 및 미래통일한국의 준비                           |
|                                 | 29 | 전현경 | 모든사람들이 기부를 해야하나? 재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 3회<br>Living library<br>blossom | 30 | 이강오 | 인생은 여행                                          |
|                                 | 31 | 구현지 | 행복하다                                            |
|                                 | 32 | 이주행 | 이동통신 및 에너지 기술개발현장경험 with global experience      |
|                                 | 33 | 유용재 | 꿈꾸는 생태주의자                                       |
|                                 | 34 | 장상미 | 호기심은 공포를 이긴다                                    |
|                                 | 35 | 신승원 | 인간의 욕구와 전공 직업선택                                 |
|                                 | 36 | 박재진 | 시간, 셀프 리더십에 길을 묻다                               |
|                                 | 37 | 김재경 | 무한도전 간호사                                        |
|                                 | 38 | 유춘강 | 책과 연애하자                                         |
|                                 | 39 | 김성환 | 정치/변화/리더/청춘/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체인지 리더'가 되자          |
|                                 | 40 | 이창림 |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
|                                 | 41 | 김은택 | 언어(외국어)는 소통이며 사랑입니다                             |
|                                 | 42 | 서만석 | 위기의식을 가지세요                                      |
|                                 | 43 | 김지경 | 기자생활 그 안과 밖                                     |
|                                 | 44 | 장동선 | 마술처럼 멋진 삶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                                 | 45 | 이소유 | 책과 더불어 삶을 가꾸는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                      |
|                                 | 46 | 손중선 |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                                   |
|                                 | 47 | 이현정 | 기차 타고 백두산, 유럽 배낭여행 고고씹!                         |
| 4회<br>다독다독                      | 48 | 이혜순 | 한복, 우리의 옷 문화입니다.                                |
|                                 | 49 | 김숙희 |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
|                                 | 50 | 유용재 | 꿈꾸는 생태주의자                                       |
|                                 | 51 | 이미영 | 독립활동가                                           |
|                                 | 52 | 이윤정 | 방송을 사랑하는 친구들, 다 모여라!                            |
|                                 | 53 | 김성환 | 세상을 바꾸는 '리더학교'                                  |
|                                 | 54 | 정원오 | 정치와 행정이 우리 삶을 바꾼다.                              |
|                                 | 55 | 윤선현 |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는 전문가                                |
|                                 | 56 | 김정현 |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br>당신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나요 |
|                                 | 57 | 최나영 | 청소년으로 살아가기=꿈을 가지자                               |
|                                 | 58 | 최보인 | PR이란?                                           |
|                                 | 59 | 구현지 | 행복하자                                            |
|                                 | 60 | 이승현 | PD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가요?                        |

|                   |    |     |                                                     |
|-------------------|----|-----|-----------------------------------------------------|
|                   | 61 | 라용이 | 심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듯<br>심표 없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 |
| 5회<br>봄봄:<br>봄을보다 | 62 | 박재진 | 시간, 셀프리더십에 길을 묻다.                                   |
|                   | 63 | 김은택 | 언어(외국어)는 소통이며 사랑입니다.                                |
|                   | 64 | 이종성 | 성공의 조건 KAHN                                         |
|                   | 65 | 임석희 | 우주와 나                                               |
|                   | 66 | 손미나 | 나는 나를 사랑한다.                                         |
|                   | 67 | 천광수 | 절대 긍정 마인드=삶의 원동력                                    |
|                   | 68 | 조 윤 | 창작은 행복해                                             |
| 6회<br>어울림         | 69 | 강지현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행복                                   |
|                   | 70 | 문현규 | 겁내지 마세요                                             |
|                   | 71 | 박재진 | 시간, 셀프리더십에 길을 묻다                                    |
|                   | 72 | 설동근 | 농사짓는 변호사                                            |
|                   | 73 | 기 비 | 최선을 다하자                                             |
|                   | 74 | 이미섭 | People need people                                  |
|                   | 75 | 제미정 | 나답게 사는 일은 방황을 멈추는 일이다.                              |
|                   | 76 | 조 윤 | 창작은 행복해                                             |
|                   | 77 | 오대석 |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
|                   | 78 | 장진환 | 최선을 다하는 삶                                           |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 카페 <http://cafe.naver.com/seoulivinglibrary>

## ■ 간략하게 보는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 추진과정

- 2011. 06. 18 제1회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Living Library In Seoulforest  
-우리는 서울숲에서 사람책을 읽는다
- 2011. 08.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 결성
- 2011. 10. 29 제2회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Fall in Living Library-사람책을 읽는 시간
- 2012. 05. 26 제3회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Living Library Blossom-꿈이 피어나다
- 2012. 09. 13 제2회 시민교육박람회 어우러진 가지상(우수상) 수상
- 2012. 10. 27 제4회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다독다독
- 2012. 11. 26 녹색공유도시 선포식-청소년 대표로 참여
- 2013. 05. 26 제5회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봄봄
- 2013. 08. 16 리빙라이브러리 홍보활동(서울숲)
- 2013. 10. 19 제6회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어울림> 진행  
: 사람책과 독자간의 서로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어울림 시간을 가짐.
- 2014. 02. 18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사례발표(예정)

## 2. 리빙라이브러리의 필요성과 확대 가능성

서울숲이 위치해 있는 성동구에는 19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한 대부고의 Teen's seoul 동아리 학생들이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으로 활동 중이며 리빙라이브러리 통해 청소년과 서울숲이 손을 잡고, 이웃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독자로 참가했던 행당중학교와 한대부고, 성수고, <시간여행자>청소년 커뮤니티, 무학여고, 서기 봉사자로 참가했던 신구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여대 등 여러 대학생들, 그리고 사람책으로 참가했던 전문가와 지역의 많은 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획단과 서울숲을 출발하여 뻗어나갔던 손길은 지역의 이웃과 친구, 선생님, 가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키워나가는 청소년을 통해 자신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 선생님, 가족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남을 통해 이어진 끈들이 청소년들을 당기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했고,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 만나고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현장의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는 일들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독자 중에는 관심이 있어 찾아오는 청소년도 있고, 기획단 학생의 손에 이끌려 참여하게 된 청소년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계기로 참여했던 학생일지라도 참가 후에는 “이렇게 좋은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미리 왔을 텐데.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똑같은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청소년의 교과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 중의 하나로 리빙라이브러리를 진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리빙라이브러리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면?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과 함께 학교 안이나 지역에서 리빙라이브러리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도를 한다면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기획단은 대화로 성장하여 몇 년 뒤 청소년들을 위한 사람책으로 참여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많은 곳에서 리빙라이브러리가 실천되었으면 합니다.**

### ■ 서울숲의 역할

2011년 서울숲이 기획과 진행 / 청소년 기획단 모집

2012년, 2013년 서울숲에서 기획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청소년이 모집한 기획단과의 만남. 협의를 거쳐 행사에 필요한 장소, 물품, 홍보, 독자모집에 대한 온라인 홍보. 서울숲을 무대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멘토로써 역할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리빙라이브러리를 알리고 청소년들의 활동기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 3. 리빙라이브러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의 참여대상은 사람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청소년입니다. 진로와 꿈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단과 독자들이 모두 청소년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참여 후 소감을 읽어보면 리빙라이브러리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소감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나누면서 즐거운 고민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래를 만나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다양한 세상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사람책의 인생스토리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 배려하는 마음

청소년들은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내가 만약 사람책이라면?’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 ■ 경쟁이 아닌 협력

준비과정부터 진행까지 모두가 함께 역할을 하면서 리빙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독자 OT 때 듣는 등마는 등 하는 아이들, 친구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아이들, 우왕좌왕 아이들을 보면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면서 그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고, 청소년들은 이내 자신의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대화에 집중하게 되고, 1차 테이블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또래를 만나서 그 고민을 하며 자랐던 사람책의 조언과 경험담을 듣고 자신만을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2011년 중학교 3학년이던 김단비 학생은 진학과 진

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1회 리빙라이브러리에 독자로 참여했다가 고민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째 기획단으로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고민과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를 하면서 어른들이 말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청소년의 많은 부분들이 대화와 소통의 부족이었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를 통해 청소년들은 정해져있는 교육과 생각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생각과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경험과 과정들이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하며 리빙라이브러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었고 배운 것도 많았다.

오늘 배운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사람책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다."

"말주변이 없어서 계속 듣기만 했던 게 좀 아쉬웠다.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만났던 책들하고 다시 연락을 꾸준히 하고 싶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이 조금 짧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점이였다. "

"사실 요즘 친구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팁도 알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다"

"대학생활에 대한 모든 것!! 딱딱하지 않은 재미있는 주제로 즐거운 토크를

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길을 그려놔야겠다."

"생각이 많았는데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실용적인 지식을 얻어 갈 수 있었다.

지도를 얻은 듯하다."

"요즘은 현실에 눈이 뜨여서 꿈을 포기할까 했었는데

다시 꿈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자신의 재능을 얹매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펼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멋져보였고 본받고 싶다.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의사에 대해 한층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 아버지라서 가까운 느낌이었다.”

“변호사라고 하셔서 조금 딱딱한 시간일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다보니 편안한 시간이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마음에 더 와 닿았고, 신기하였습니다.”

## 기획단 학생들의 목소리

“독자로 참여했던 두 번의 행사와 기획단으로 참여했던 두 번의 행사 모두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독자로 참여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상세한 기획 과정에까지 참여하면서 더욱 보람을 느꼈다.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서 오는 뿌듯한 기분과 기획단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면서 느꼈던 행복감을 선사해 주어서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에게 새삼 더욱 고맙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만나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행복했던 점 중 하나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 지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디자인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앞으로 후배들이 축이 되어 또 다른 참신한 리빙라이브러리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013 기획단 2학년 양은지

“행사에 대한 테마와 제목을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독자로서 사람책을 만나보는 것도 모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행사에 대해 회의를 하던 때와 행사를 마친 후의 보람이 기억에 남는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한 점, 좀 더 잘 해내지 못한 점 등등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나 후회도 많이 남는다. 내년에는 올해의 아쉬웠던 점을 다 메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2013 기획단 1학년 조예린

“지난 5월 25일, 3학년 선배들이 떠나고 2학년들이 주축이 되어 1학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준비한 서울숲 리빙라이브러리 행사 ‘봄봄’이 열렸다.

3학년 선배들이 주도해서 준비해주시던 것들을 우리가 주도해서 처음 하려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기획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섭외해서 결국 멋진 행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했다.

이번에는 작년의 두 번의 행사들에 비해 규모가 조금 작게 진행되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 큰 규모의 행사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바쁘신 와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사람책분들께 너무나 감사했다. 이번에 부족했던 점들은 다음에 더 신중한 태도와 준비로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 2013 기획단 2학년 황다인

“지금까지 행사에 참여해 본적은 있지만 기획해 본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리빙라이브러리 행사는 나에게 처음 기획해 본 행사이고 해서 아주 뜻 깊었던 행사인 것 같다. 처음이라 그런지 모임이 어색하고 이 행사에 도움이 많이 못 된 것 같아서 선배들께 죄송하고 나 자신에게도 좀 한심하고 그랬다. 그래도 많이 도움주셔서 감사했다. 행사가 시작하기 전 테이블 위를 장식하는 거나 시작하고 나서 독자 앞에서 자기 소개한다는 것 모두 다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다. 또 독자로도 참여할 수 있어서 진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말 잊지 못할 행사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다음 행사 때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 2013 기획단 1학년 김수현

“작년 나는 독자로서 사람책들과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대화의 힘을 알게 되었다.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는 대화가 즐거웠다. 그래서 사람책과의 대화가 가장 큰 리빙라이브러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번에는 독자로 참여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그대신 설문지 만들기라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다. 선배들없이 준비하는 행사가 걱정스러우면서도 설렘이 있었는데 확실히 재밌고 뿌듯했다. 또 처음으로 후배 단원들을 만나고 선생님과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현장에서의 준비도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더이상 녹은 초콜렛을 만들지 않기 위해. 늘 이전의 행사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 발전하는 리빙라이브러리가 되자!”

- 2013 기획단 2학년 김소연

총 합 정 리

**일상 시민교육 방법론으로서의  
휴먼라이브러리 재조명**





# 일상 시민교육 방법론으로서 휴먼라이브러리 재조명

희망제작소 교육센터

남경아 교육센터장, 최영인 선임연구원, 이민영 연구원

## 1. 휴먼라이브러리를 알기 위한 주요 개념 이해

### (1) 휴먼라이브러리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지난해 6월, 희망제작소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최고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독일, 덴마크 평생교육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조사를 하던 중 국내에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Ronni Abergel)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식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에 방문하기 전 머릿속에 그려지는 휴먼라이브러리는 명사 중심의 작은 강연회, 이웃 간 재능 나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초점을 맞춘 일회성 프로그램이거나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에서 만난 휴먼라이브러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사람책과 독자가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거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그 자체가 이미 단순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혁신적 방법론을 넘어 사회통합과 갈등을 다루는 일종의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희망제작소가 늘 고민하고 있는 시민교육과 연결되어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탐색을 이어나가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접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람책’을 통한 소통”이라는 콘셉트를 창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은 꽤 성공을 거두어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우 단순한 방법론일 수 있는 휴먼라이브러리의 어떤 저력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일까요? 로니 애버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 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뿌리 박혀 온 편견과 고정관념이 몇 마디의 대화와 소통으로 과연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질문과 의심을 이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록은 이런 우리의 질문과 고민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란 무엇인가?



▲해외연수 중 휴먼라이브러리를 소개하는 로니 애버겔

### ①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개념 정의의 한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하지만 정작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 학문적 의미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첫 질문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이 개념이라는 것이 인지적, 사회학적, 정치학적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해석과 의미로 표현되고 있어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국내에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나마 있는 책이나 논문도 주로 외국의 서적들을 번역한 것이다 보니,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맞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어떤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교육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전문 학술 서적과 참고서가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②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의 개념과 특징

위와 같은 한계를 먼저 밝히면서, 필자가 이해한 수준에서 각각의 개념과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선입견(Preconception)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하여 실제 체험에 앞서 갖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물, 사건, 인물 등에 대해 사전에 접한 정보나 지식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대상에 대해 형성되는 고정적이며 변화하기 어려운 평가 및 견해를 뜻합니다. 선입견은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인 것 등 갖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데, 때로는 무비판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되면 ‘편견’이 되는데, 인종적 편견, 사회적 편견 등 대부분은 이러한 선입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고정관념(Stereotype)은 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널리 퍼져있는 지식이나 믿음을 일컫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립만(Lippman, 1922)에 의하면 고정관념은 특정한 사회 집단에 대해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젠더, 인종, 민족, 출생 지역, 그리고 여러 직업군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운동선수는 머리가 나쁘고, 유태인은 인색하며, 흑인은 폭력적이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며, 금발은 멍청하다 등이 전 세계적으로 흔히 접하는 고정관념의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곧장 편견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주 또는 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인지적인 측면을 ‘고정관념’, 감정적인 측면을 ‘편견’,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을 ‘차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 \* 편견(Prejudice)은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하여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라면, 편견은 어떤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편견은 대부분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하고, 특정한 선입견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 대상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낮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셋째, 대다수의 편견은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매우 강고하며,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비판에 대해 강하게 저항을 보이기도 합니다. 넷째,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일시적인 사회통합의 기능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온통 붉은색 옷을 입고 태극전사들을 한목소리로 응원하던 모습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듯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집단 사이에 경쟁심을 고취시키거나 사회적 정체성을 위협받았을 때 크게 나타나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 야유를 보내는 관중들의 행동도 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과 경험 속에서 축적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사회적 편견’입니다. ‘사회적 편견’은 고정관념이 심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편견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별’과 ‘폭력’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니까, 이번 인사(人事)에서 제외해야 해’라고 한다면 이는 곧 차별과 폭력이 되는 것이죠. 즉, 앞서 ‘편견’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고 했는데, ‘차별’은 표출된 구체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누군가가 어떤 소수집단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런 태도가 자신의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는 편견은 가졌지만 차별은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3) 편견과 고정관념, 어떻게 형성되나?

우리는 왜 특정한 사람들(또는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편견이 형성되는 기원을 찾는 이론으로는 심리 역동적 접근, 사회 학습 접근, 인지적 접근, 사회 인지 발달 접근, 진화적 접근 등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론 가운데서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양육 스타일, 또래 집단의 영향, 사회적으로 편견에 대한 논의의 부재,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에 대한 지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사회적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적은 학생일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고 사회적 친밀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및 집단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편견을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인지적 관점에서 편견과 ‘도식(Schema)’을 연결한 개념도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 ‘도식(Schema)’은 정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고의 틀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모

든 정보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식을 통해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서 빨갛고 둥글고 시큼한 과일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사과에 대한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돼 직접 다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바뀌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식은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대부분 부정확하며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 사과만 접했던 어린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초록색 사과를 보여주면 처음에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바로 도식에 의한 한정적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이나 언론에서 시민이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과 집단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지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편견이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감정적 태도와 제한된 체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북한이탈주민인 친구가 생긴다면, 전형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오해나 불편한 인식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사람책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左)과 벤덴(右)

#### (4)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 잡은 편견과 고정관념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낸 인종차별, 학력차별, 양성차별 등이 때로는 한 사회를 넘어 인류의 발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과 폭력을 불러일으킨 비극적 사례는 과거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940년대에 유럽의 인종적 혈통을 순수화한다는 미명하에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의 노예문서는 남북전쟁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앞의 사례처럼 극단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일상의 소리 없는 폭력과 차별, 그 갈등의 현장은 우리 주위에서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건네는 말 한 마디에도 편견은 숨어 있습니다. “몇 학번이나” “전공이 뭐냐”고 묻는 게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학을 졸업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니까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가정환경조사라는 이유로 부모의 학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입니다. 지난 1월 경향신문은 “학벌사회, 수치로 입증됐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생활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에서 학벌에 따라 받는 차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일상의 작은 말 한 마디와 행동에서부터 옵니다.

얼마 전 신문을 통해 본 기사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2013년 12월 국민일보 ‘편견에 우는 여성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자취, 유학, 외국인 교류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감점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문란할 것’이라는 편견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편견들이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 편견이 차별을 넘어 폭력으로 이어지는 단면을 본 것 같아 매우 씁쓸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는 편견이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견으로 인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줍니다.

편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휴먼라이브러리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휴먼라이브러리라는 방법으로 구체화된 것일까, 휴먼라이브러리가 실제로 편견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등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휴먼라이브러리 공식 홈페이지와 소개서를 중심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세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 2. 휴먼라이브러리의 배경과 특징

### (1) 휴먼라이브러리의 시작

휴먼라이브러리는 덴마크 최대 음악축제인 ‘로스킬레 페스티벌(Roskilde Festival)’ 부대 행사로 열렸고, ‘스탑 더 바이올런스(Stop The Violence, 폭력을 멈춰라)’가 2000년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스탑 더 바이올런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덴마크의 청년 단체입니다.

스탑 더 바이올런스는 5명의 코펜하겐 젊은이들이 폭력 방지를 위해 1993년에 만든 단체인데, 그들의 한 친구가 무자비하게 칼에 찔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약 7천 명의 회원이 이 운동에 가입했고, 대다수 회원의 연령은 12-18세였습니다. 스탑 더 바이올런스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로스킬레 페스티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첫 휴

먼라이브러리를 개최했고, 로스킬레 재단이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휴먼라이브러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탑 더 바이얼런스과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중 한 명인 로니 애버겔(RonniAbergel)은 첫 번째 휴먼라이브러리 이벤트 이후, 휴먼라이브러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NGO, 공공기관들을 만나 휴먼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이벤트를 여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산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된 파트너는 유럽위원회였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휴먼라이브러리 소개서 제작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휴먼라이브러리가 확산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해외사례 예시

## (2) 일상의 낯선 사람과 만나는 자리, 휴먼라이브러리

‘낯선 사람은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이다’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의 오래된 슬로건인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휴먼라이브러리를 설명해 주는 슬로건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만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휴먼라이브러리의 취지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일상에서 만납니다. 채소가게의 아랍상인, 피자 가게의 터키 사람, 모로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등. 그렇지만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공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자들과 한 번이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서로 다른 음식문화에 대해서, 이슬람교도라면 히잡과 같은 복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편하게 만나 얘기할 수 있어야 공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와 경험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 로니 애버겔(Ronni Abergel)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코펜하겐도 이민자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데, 코펜하겐 인구 54만 명 중 이민자 비중은 약 22%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른 인종, 다른 종교 집단과의 교류경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덴마크 시민 10명 중 8명은 해당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니가 코펜하겐에서 이민자들과 일상적 만남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0만 여명이고 전체 인구의 2.8%, 즉 국민 32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들의 평균이 10%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외국인의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소통, 교류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3) 휴먼라이브러리의 힘, 단순함

“모든 것은 가능한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좀 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해야 한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단순함의 힘을 강조한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휴먼라이브러리의 저력은 바로 ‘단순함’에 있습니다. 창립자인 로니 또한, 휴먼라이브러리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는 방법론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일반 도서관과 거의 똑같이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독자가 방문해 정해진 시간 동안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또 다른 책을 빌리는 과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휴먼라이브러리의 책은 사람이고, 독자와 ‘사람책’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점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각 나라별, 지역별로 운영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상대출 외에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도 많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의 소개서에 따르면, 휴먼라이브러리의 사람책은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 및 고정관념과 맞닥뜨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고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자들의 질문도 받습니다. 또한 사람책이 독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4) 3대 특징: 무형식, 다양성, 저예산

휴먼라이브러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공간에서건 형식과 규모의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무형식, 다양성, 저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 무형식: 주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참가자들과 사람책 사이에 자유로운 대화, 질문으로 진행.
- \* 다양성: 휴먼라이브러리는 주제, 공간, 참여자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음. 장소도 공공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센터, 대학 캠퍼스, 쇼핑센터, 직장 등 언제, 어디서나 가능.
- \* 저예산, 고효율: 휴먼라이브러리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사람책도 자원봉사. 각 지역에서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할 때는 스스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리가 한국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를 추진하기 위해 로니 애버겔과 회의를 진행할 때, 로니가 강조한 몇 가지 운영원칙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행사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책이 비용을 받는 순간, 본연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단, 장거리 사람책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통비는 보조할 있다. 또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 펀딩을 시도할 경우에도 펀딩사의 윤리성,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5) 가장 중요한 자원, 사람책

일반 도서관이 그렇듯이 휴먼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책, 바로 사람책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소개서에서는 사람책 선정 방법, 사람책 제목 정하기, 사람책과 사전미팅 방법, 사람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사람책들의 체험 후기 등 매우 많은 분량을 사람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핵심으로 하지만, 휴먼라이브러리의 사람책들이 반드시 사회적 편견의 대상, 혹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굴곡진 인생을 들려주고픈 사람, 그 어떤 주제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휴먼라이브러리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불건전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책(예: 마약남용자, 축구 훌리건), 도덕적, 정치적으로 의문시되는 사람책(예: 신나치주의자), 개인적 믿음을 전파하거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사람책(예: 종교인, 영업인)은 지양하라

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 행동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책, 예를 들어 마약중독을 극복한 사람 등은 포함시킬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매우 다양하고 재밌는 사람책 목록>

장애, 안면장애인, 여성소방관, 축구열광팬, 장의사, 치유자, 노숙인, 동성애자, 인문주의자, 이민자, 기자, 레즈비언, 무슬림, 경찰관, 정치인, 난민, 엄격한 채식주의자, 회계사, 인류학자, 알코올 중독자, 망명 신청자, 금발 여성, 불교 신자, 보디빌더, 대머리, 양성애자, 맹인, 관료, 암환자, 대마 흡입자, 성직자, 감독, 공산당원, 청각장애인, 치과의사, 당뇨환자, 외교관, 장애인, 무도회 1등 수상자, 환경운동가, 전 조폭, 페미니스트, 장의사, 도박 중독자, 천재 연구자, 그래피티 아티스트, 해커, 증오범죄 희생자, 힌두교도, 히피족, HIV 보균자, 노숙자, 이맘, 유대인, 재판관, 변호사, 사서, 남성 아기 돌보미, 남성 간호사, 매니저, 수학자, 시장, 정신장애자, 기상학자, 나이트 클럽 댄서, 주차장 직원, 중재자, 매춘 종사 여성, 철학자, 경찰관, 성형외과 의사, 점술인, 랍비, 치안경비원, 가출 아동, 시크교도, 심리학자, 편부, 스트리퍼, 병약한 사람, 트랜스젠더, 실직자, 마녀, 노동중독자, 동물학자...

## (6) 휴먼라이브러리 F&Q

휴먼라이브러리를 처음 개최하고자 하면 궁금한 게 많아지기 마련인데,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 본부에서는 전 세계 기획자와 운영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모든 휴먼라이브러리가 이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제는 없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기획자의 의도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먼라이브러리 글로벌 활동을 위해서는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와 사전협의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이럴 경우에는 휴먼라이브러리 공식 소개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Q. 휴먼라이브러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개최하나?

A. 특정 편견 및 고정관념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이러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인 자격으로도 개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열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Q. 휴먼라이브러리는 주로 어떤 장소에서 개최되나?

A. 휴먼라이브러리는 공공도서관, 페스티벌, 대학, 컨퍼런스, 학교, 쇼핑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개최됐다. 책을 대출하여 읽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 **Q. 사람책이란 무엇인가?**

A. 사람책은 사람들의 편견 해소를 위해 자원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대출한 독자와 정중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편견에 도전한다. 사람책의 제목은 그들이 경험한 편견이나 차별이 잘 대변될 수 있도록 붙여진다.

### **Q. 누구나 사람책이 될 수 있나?**

A. 그럴 수 없다.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취향, 성 정체성, 계급, 종교, 라이프스타일 등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편견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책이 될 수 있다. 사람책 제목은 이러한 편견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그들의 마음 속 편견을 직면하고 도전해 볼 수 있다.

### **Q.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기 위해 몇 권의 책을 준비해야 하나?**

A. 2~3권에서부터 70권 이상까지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책을 모집해 다양한 편견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프로그램 진행 장소의 크기 및 운영자의 수를 고려하도록 한다. 처음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는 경우 10-15권 정도의 사람책이 적당하다. 이 정도 숫자면 어느 정도 다양한 편견을 포함할 수 있고, 3-5명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자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 **Q. 사람책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A.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에게 안전 관련 이슈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안전 관련 상세 내용은 휴먼라이브러리 무료 소개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에 걸쳐 수천 건 이상의 만남과 대화가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책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사람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어떤 사람책을 어떻게 모집할지 신중히 결정하고, 운영자의 관련 역할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단어나 문구를 만들어 대화가 안전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Q. 우리 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한 가지 주제만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해도 되나?**

A. 안 된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지 모를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고자 한다.

### **Q. 사람책 제목을 창의적이고 별나게 정해도 되나?**

A. 사람책의 역할은 그들이 겪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는 이점을 사람책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사람책의 제목은 그들이 경험한 편견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간단해야 한다. 효과적 사람책 제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난민, 조울증, 게이, 전(前) 갱 단원, 이슬람교도, HIV감염자, 트랜스젠더, 젊은 한부모, 알코올중

독 회복 중인 자, 이민노동자, 전(前) 재소자, 경찰관, 정치인 등.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책 제목 자체가 독자들의 마음 속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우리 단체의 활동 및 신념을 홍보하기 위해 휴먼라이브러리를 활용해도 되나?**

A. 안 된다. 휴먼라이브러리는 편견,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 차별에 도전하기 위한 평등 프로젝트로서 시작되었다. 특정 신념을 확산시키거나, 특정 단체 및 개인을 홍보하거나, 상업용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7) 전 세계 휴먼라이브러리

작년 12월,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은 미국 TED에 출연,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휴먼라이브러리는 단순히 다양한 교육방법론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민주시민 학습의 장이자 배움의 플랫폼으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국제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매년 기획자들을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와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8일~1월 30일에는 태국에서 <International Forum on Human Library development in the ASEAN>이라는 제목의 국제포럼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각국의 휴먼라이브러리 최근 소식을 로니가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도 참조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 \* 덴마크: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결합은 많지 않으나, 휴먼라이브러리의 역사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도서관 조직, 덴마크 도서관협회, 지역 내 education center, 직업학교, 학교 등을 중심으로 휴먼라이브러리 이벤트 활동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의회나 지방정부 대상으로 훈련/워크숍에 활용되기도 함. 주로 프로젝트 형태로 실천되고 있으며, 직업학교에의 차용이 활발한 편.
- \* 노르딕 국가(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차원에서 함께하는 이벤트도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 휴먼라이브러리가 활성화된 곳이기도 하며, 국가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상당한 편.
- \*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휴먼라이브러리가 하나의 기념비적 시도가 될 것 같다고 하며, 마찬가지로 2014년 말레이시아의 휴먼라이브러리 프로젝트도 기념비적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함.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휴먼라이브러리 추진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함.
- \* 유럽국가 중에서는 특히 영국이 강세인데, 홈페이지 운영도 활발하며, 미디어와 협력을 통해 다큐멘터리도 제작 준비 중이라고 함.

- \* 미주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활발하며 특히 밴쿠버 지역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함. 미국에서는 2013년 말에 로니가 TED에 출연, 휴먼라이브러리 강연 진행.
- \* 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얼마 전 이집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 3.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편견

#### (1) 2013년 한국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편견은

휴먼라이브러리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 주제와 공간이 다양하고 제한된 형식 없이 저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 2)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보장을 위해 편견을 줄이겠다는 신념, 3) 사람책과 독자가 대화라는 도구를 통해 만나는 방식을 아울러 우리는 휴먼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는 과정은 비슷할지라도, 누가 왜 개최하는지에 따라 행사의 목표와 다루는 편견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열린 휴먼라이브러리(2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는 한국사회에서 현재 어떤 편견이 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어떤 편견을 다루고 사람책을 비치할 것인지 주관단체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편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일반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 3개월 동안 페이스북, 네이버 해피로그와 개개인의 편견을 묻는 주관식형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약 40명, 오프라인 약 240명 총 250~300명이 답해주셨고, 1인 당 다수의 응답도 있었기에 총 800여 개의 편견이 모였습니다.

####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을 가르막고 있는, 우리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편견: 어떤 사람, 집단에 대하여 고정된 시각에서 갖는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

연말은 아이들 원시절로 귀찮다.  
외국인은 장난감도 장난감 안고 살아가야 한다.  
남자 회사원은 회사를 위한 노예와도 같다.  
나이가 어릴수록, 약해는 장일을 해도 된다.  
한번에 집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신 안과 여자는 성격이 기괴할까?  
우울 장애는 병이 아니다.  
질병은 사람을 무력화시킨다.

휴먼라이브러리  
The Project

Facebook에서 Human Library Korea를 검색해 주세요

####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을 가르막고 있는, 우리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편견: 어떤 사람, 집단에 대하여 고정된 시각에서 갖는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

1. 저소득층의 Level은 그 사람의 사생활  
저위를 편하게 하는 편견  
2. 좋은 대상을 내면 무는 정권과  
나쁜 편견  
3. 부유층은 스마일하는 것이라는 편견.  
4. 예쁜 여자들은 성격도 좋은 것이라는  
편견.  
5. 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성격도  
좋은 것이라는 편견.

휴먼라이브러리  
Th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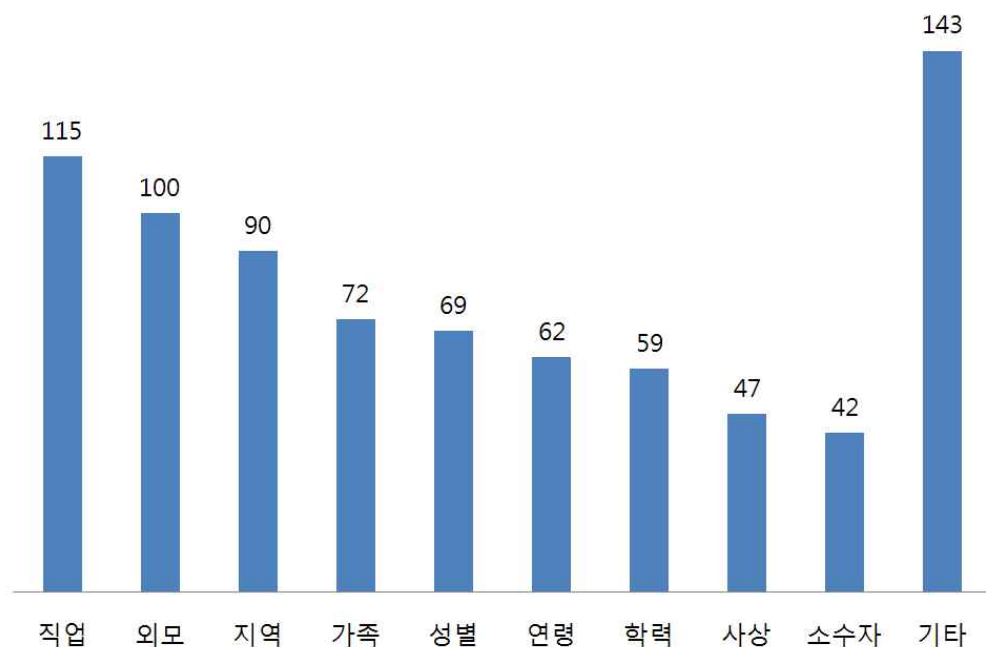
Facebook에서 Human Library Korea를 검색해 주세요

#### ▲편견질문지(말풍선) 응답자료 예시

이번 편견조사는 일반적 사회조사방법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최대한 사람들이 편하고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 조사에 앞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해 본 워크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편견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해보니, 응답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온라인보다 익명으로 기재되는 오프라인 설문형태에 사람들은 더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객관식 문항을 통해 경향을 파악할 수도 있었지만 가능한 사람들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들여보기 위해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성별과 연령 등 응답자의 분포가 일관적이지 않고 응답내용도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견조사는 향후 한국인들의 편견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될 때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받은 응답은 임의로 소재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 주제별로 어떤 편견들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지를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특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별로 포괄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주제별 편견개수 (총 응답수 799개, 단위: 개)

### <항목 설명>

직업: 소득을 얻는 활동이 아닌 '역할' 등도 포함 (예) 아파트입주자대표

외모: 얼굴, 인상, 체형 및 연관된 행동 특성도 포함

지역: 특정 장소, 지역, 민족, 인종 등을 포함

가족: 결혼제도, 가정, '집'에 해당되는 사항들 포함 (예) 비혼주의자, 한부모가정

성별: 남성, 여성 및 고정된 성 역할

연령: 세대 담론 등도 포함

학력: 학교, 학과, 학벌, 성적 등

사상: 정치, 종교, 가치관, 신념 등 (예) 중북, 병역거부, 채식주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정함 (예) 장애인, 이주민, 시설아동

기타: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

직업에 대한 응답이 월등하게 높았고, 외모, 지역 등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러한 편견이 있다'라고 주로 언급되는 편견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습니다. 한 주제로 묶기 어려운 기타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수를 차지했고, 기타 항목 중에는 혈액형에 관한 편견 22개, 돈·물질에 관한 편견 21개 정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이 빈도수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이번 응답 분석을 통해 알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에 관한 편견이 가장 많이 작성된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농공상의 유교적 인습이 여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직종과 직업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나는 장애인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해', '동성애자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심리적 부담감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응답하기까지의 참여경로나 오프라인 상에서 기재를 권유하였던 누군가의 설명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 (2) 전 세계 공통적인 편견의 특징

다만 편견에 관한 응답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편견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대상으로는 《The Living library Organiser's Guide 2011》의 '영어, 헝가리어 두 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목록'을 참고했습니다.

### ① 직업군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편견이 생긴다.

직업에 관련한 편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크게 두 가지 발생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에서 흔히 보기 어려워 대중매체 등에서 보여주는 판에 박은 듯한 시선이 편견이 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주변에서 흔히 보면서 겪거나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편견

이 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와 같은 상황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직업군 중 하나는 ‘정치인’입니다.

| 정치인에 대한 편견 (국외) | 정치인에 대한 편견 (국내) |
|-----------------|-----------------|
| 부패한             | 누구나 비리를 저지른다.   |
| 지루한             | 다 썩었다.          |
| 거짓말쟁이           | 국민을 바보로 안다.     |
| 기회주의자           | 맨날 싸운다.         |
| 정당정치의 노예        | 믿을 수 없는 존재다.    |

▲정치인에 대한 국내외 편견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치인을 접하게 되는 계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뉴스가 자주 보여주는, 드라마에 나오는 정치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성격과 행동이 사람들의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와 편견을 형성합니다.

또 어떤 편견은 직업군의 특색 때문에 한 측면이 주로 강조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편견입니다.

| 공무원에 대한 편견 (국외) | 공무원에 대한 편견 (국내)      |
|-----------------|----------------------|
| 부패한             | 고지식하다.               |
| 일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 일을 남에게 미루고 책임을 회피한다. |
| 결제 도장 찍기를 좋아하는  |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만 추구한다.   |
| 불필요한 요식을 중시하는   | 뒷돈을 챙겨줘야 인허가가 빨리 난다. |
| 지루한             | 수시로 비리를 저지른다.        |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편견

물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편견은 정해진 규격과 요건을 맞추어 규정대로 움직여야 하는 직종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무원을 직업인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주로 정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허락을 구해야 할 때이므로 생기게 되는 편견이 아닌가 합니다.

## ② 어느 나라나 인근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편견이 강하다.

| 루마니아에 사는 헝가리인에 대한 편견 (국외) | 중국인에 대한 편견 (국내) |
|---------------------------|-----------------|
|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 안 씻는다.          |
| 스스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 주변에 무신경하고 무례하다. |
| 가난하고 옷차림이 지저분한            | 목소리 데시벨이 높다.    |
| TV를 시청하는 대신 민요를 부르는       | 지저분하고 정돈을 안 한다. |
| 술이나 담배를 밀수해 부수입을 버는       | 돈을 펄펄 쓴다.       |

### ▲인근국가 국민에 대한 국내외 편견

앞서 말한 소개서에는 루마니아인, 슬로바키아인, 헝가리인 등에 대한 편견이 다수 기재되었지만, 이번 편견 조사에서 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편견은 전무했습니다. 대신 중국인, 일본인, 동남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편견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앞의 사례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국민들이 교류할 기회가 잦은 만큼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 편견을 갖게 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의 특색이 있다면 바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것입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편견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 (3) 한국에서만 드러나는 몇 가지 편견들

앞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편견을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편견 외에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성을 담은 편견도 분명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화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혈액형

A형은 소심하다, B형 남자는 바람을 피운다, O형은 성격이 좋고 뒤틀이 없을 것이다…….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단정 짓는 현상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구분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실상 역시 어느 정도 사회에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에 관한 편견을 적었습니다.

### ② 나이

연령과 관련한 편견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됩니다. ‘나이드 사람은 보수적이다.’, ‘나이드 사람은 행동이 굼뜨고 고지식하다.’와 같은 고정된 편견도 있지만, 20대, 아줌마, 아저씨, 늙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와 연관된 편견들이 표현됩니다. ‘김 여사는 운전 못

다.’, ‘배 나온 중년남자는 변태일 것이다.’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③ 성 역할

성 역할을 다루는 편견 역시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과 만나면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성 역할은 ‘사랑 고백은 꼭 남성이 해야 한다.’거나 ‘남성은 직장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 살림을 도맡는 게 보기 좋다.’처럼 성별로 주어지는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허세가 심하다.’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과 결합해 발생하는 편견들도 있었습니다.

### ④ 학력

‘서울대생들은 머리는 좋지만 사회성이 떨어진다.’나 ‘연고대 출신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등은 대학 서열에 따라 기회가 불균등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편견이 두드러졌습니다. ‘고졸 혹은 대학 중퇴자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대안학교 학생이나 홈스쿨러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처럼 보통의 학교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적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 ⑤ 소수자

이주민, 동성애자, 장애인……. 우리가 흔히 ‘편견’하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편견을 기재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들을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출된 편견 505개 중 소수자와 관련한 응답은 35개로 기타 항목 비율보다 적은 7%에 불과했습니다. 종교를 주제로 한 편견 중 신도가 소수인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편견보다 기독교인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더 많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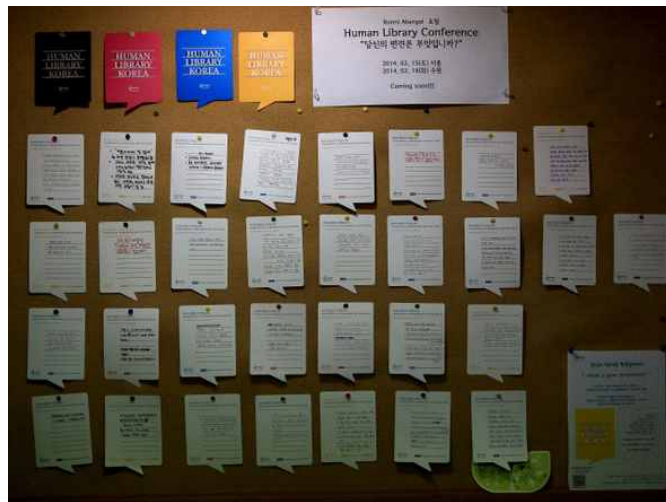
제한된 사람들의 주관식 설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편견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응답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휴먼라이브러리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느끼고 관찰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편견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과 태도는 우리에게 다양한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고민의 과정을 공개하고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될 듯합니다.

## (4) 한국인에게 편견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각 개념의 학술적인 정의는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전적 정의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임과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게 됩니다.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편견을 수렴하

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편견을 인식하고 있는지 한 걸음 떨어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편견 설문카드를 전시한 벽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내용이 담겼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할까 궁리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언급했는지 한참을 설명한 뒤에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면서 편견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편견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단어가 주인공이 되는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선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편견이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편견을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시험시간에나 보듯 한 손으로 머리를 쥐어짜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펜을 들며 눈은 용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공통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기재하는 편견은 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회의 시선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부적합한 견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당신이 겪고 있거나 겪어본 적 있는 불편하고 불쾌했던 사회 속 부정적 통념은 무엇입니까?”로 해석하여 응답했습니다. 일례로 비영리활동가에 대한 편견은 1백여 개의 직업에 대한 편견 중 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중 대다수가 비영리기관 활동가들이 써낸 의견이었습니다. 자신이 비영리활동가로 살면서 들었던 오해를 여러 편견 중

가장 많이 손꼽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편견 자체를 크게 고민하지 않으며, 어떤 부정적 견해로 인해 나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할 때 편견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5) 편견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 ① 나는 편견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선만 편견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사회갈등에 관심을 갖고 그 중 몇몇은 편견이며 이 편견이 차별로 이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받아본 편견 메시지 중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견은 내 편견이 아니다”라고 기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회 속 편견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편견이 무엇이나 물었는데 자신의 편견은 아니니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함의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사람들은 편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알면서도 일정 부분 자신도 그 편견에 동조하게 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폐쇄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편견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견의 주체는 내가 아닌 불특정 다수라고 여깁니다. 이는 사회학자 데이비슨(W. Phillips Davison)이 주창한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와도 연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메시지가 자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여기는 개인의 지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3자 효과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판단력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경향을 설명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제3자 효과가 편견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편견: 어떤 사람, 현상, 대상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는 착각이나 견해를 지니는 태도

나의 편견은 밝히고

싫지 않다.

박힐 수 있다면 편견이

아닐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  
The Hope Institute

facebook에서 Human Library Korea를 검색해 주세요!

####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편견: 어떤 사람, 현상, 대상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는 착각이나 견해를 지니는 태도

나는 편견이 없다. 나는 저당이다.

휴먼라이브러리  
The Hope Institute

facebook에서 Human Library Korea를 검색해 주세요!

### ▲편견에 대한 입장을 적은 설문카드 예시

## ② 편견 자체에 대한 거부감

사람들은 편견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사람들은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이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 편견의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편견을 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책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특히 공을 들인 사람책은 북한이탈주민이었습니다. 한국만이 갖는 편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책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습니다. 여러 관련 단체에 요청했고 지인까지 동원했지만 사람책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추천받은 사람책이 갑자기 퇴짜를 놓기 일쑤였고, 하겠다 안 하겠다 말 바꾸기도 여러 번이었으며,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거절의사를 표하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험적으로 내가 북한이탈주민인 걸 알리지 않는 편이 항상 자신에게 제일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체장애인처럼 눈에 보이는 편견은 오히려 감출 수가 없어서 편견이 더 심해지기도 하지만 편견을 없애려는 시도에도 힘이 붙습니다. 대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역시 사람책 섭외가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인식이나 편견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희는 봉사하는 거니까, 사회복지사가 왜 임금투쟁을 하고, 왜 처우개선 얘기에 목숨 거냐. 너네는 더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천사다 이런 얘기 들으면 경기 일으키거든요. **우리를 직업군으로 봐줘야 하는데, 나눔과 어떤 그런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돈 받고 하는 일이고, 직업인데, 그냥 봉사정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전문성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봐주면 되게, 수고한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음을 칭찬하는.

- 사회복지사 사람책 사전인터뷰 중에서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아닌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책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왜 내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그 편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책은 사람책이 되기로 승낙하고서도 자신이 겪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보다 ‘남들은’,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썼습니다. 편견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나 간접 경험들을 보여주는 능력은 사람책이 가지면 좋을 중요한 역량이지만, 내 얘기보다 소속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데 신경을 쓰다보면 자서전을 써야 하는데 르포를 쓰는 우를 범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사생활을 드러내

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과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자신은 매개자의 역할만 맡고 발언 자체는 공동의 것으로 한다든가 권위 있는 사람의 발언을 무의식적으로 빌려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 (6) 사람들이 편견을 마주하려는 용기를 내는 순간은

만일 사람들이 타인을 향한 또는 타인이 겪고 있는 편견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편견만 호소했다라면 휴먼라이브러리는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는 2월 18일 진행되는 휴먼라이브러리는 사전대출을 시작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모든 사람책이 마감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편견이란 익숙지 않은 단어로 포장한 휴먼라이브러리에 귀한 시간을 내 찾아오는 것일까요?

### ① 편견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 때

- 우리 사회에 사는 이주민의 시각을 알고 싶습니다.
- 이주민과 직접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이야기를 피한 건 아닌데, 부담스러운 틀이 없이 말을 듣고 건넬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 디아스포라 연구라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편집된 이주민의 이야기가 아닌, 날것 그대로 이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주민은 왜 자기 힘으로 성공하지 못 하는 건가요? 이주민이 바라보는 한국사회와 한국인은 어떤가요?

- 이주민 사람책 대출신청사유 중

첫 번째로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다수가 있지만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우연히 그 편견을 접할 기회가 생기게 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짧은 경험이나 매체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성급하게 수용한 의견을 정정하겠다는 의지가 생겼을 때 자신의 편견을 직면하려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 ② 나와 편견 대상과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 저는 새내기 아줌마입니다. 함께 사는 아줌마들을 이해하고 싶고 용기 받고 싶습니다.
- 나도 아줌마니까!
- 한국 아줌마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담과 염려가 너무 크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저도 언젠가 아줌마가 되겠지요? 지금 아줌마가 되길 두려워하는 것도 혹시나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또는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될까가 아닐까 싶어요. 류인혜 님의 삶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 해요.

- 아줌마 사람책 대출신청사유 중

- 그림공부중이라서...
- 예술가로서 사회적기업을 창립하고 싶어서...
- 예술가의 삶을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예술적으로 살 수 있을지 궁금해요.
- 예술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 이 책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소설을 써왔습니다. 읽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는 글을. 어쩌면 예술성은 타고나는 걸지도 모르지만, 소설을 구상하고 집필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기에 이제껏 재능이 없음에도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책의 목차가 마음에 들어, 어쩌면 위로와 격려가 될 것도 같아 이렇게 대출 신청합니다.
-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림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루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술가는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예술가들의 생각과 삶이 궁금해서 신청했습니다.
- 직업으로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자연인으로서 예술가로 살고 싶어서

- 예술가 사람책 대출신청사유 중

두 번째로 어떤 편견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때, 그 편견을 알아보고자 마음먹습니다. 내가 그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혹은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함께 모색방안을 찾고 싶을 때 사람들은 편견의 대상을 마주하려 합니다. 한편,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서 혹은 매뉴얼처럼 여길 수 있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필요해서 편견에 관심을 갖는 거라면 도리어 편견을 고착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휴먼라이브러리는 편견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생각

이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찰나의 순간을 더 자주 맞볼 수 있도록, 그 순간이 바쁜 일상에 묻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 주제로 대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4. 일상시민교육으로서 휴먼라이브러리의 과제

앞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이해하기 위해 선입견, 고정관념 등 개념을 정리하고 휴먼라이브러리의 발생배경, 형식, 특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어떠한 편견이 있으며 사람들이 편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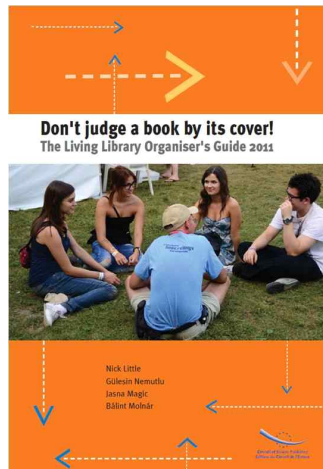
그렇다면 70여 개국에 전파되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가 한국 사회에서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궁리하면서 전제한 것은, 휴먼라이브러리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에서는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장벽 없는 대화와 상호이해를 강조합니다. 특정 주제의 편견을 없애는 수단이나 일상과 격리된 전문가로부터 배움과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휴먼라이브러리가 활용된다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추구하는 신념을 지키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과제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3주체인 기획자, 사람책, 독자 각각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1) 기획자를 위한 과제

#### ① 기획자를 위한 휴먼라이브러리 소개서 제작

휴먼라이브러리를 만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면, 이미 당신은 휴먼라이브러리 기획자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는 일은 막막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미 10여 년의 휴먼라이브러리 역사가 축적된 유럽에서는 새롭게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소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Council of Europe의 지원을 받아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The Living Library Organiser's Guide"≫가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제작되었습니다.



◀국외 휴먼라이브러리 소개서 표지

소개서에 담긴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취지와 역사를 소개하고 휴먼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해야 하는지 또 사람책과 사서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곁들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한국식 설명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들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희망제작소는 위의 두 소개서와 최신 자료를 번역, 종합하여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준비과정은 국내외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휴먼라이브러리를 처음 접하고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② 기획자 역량강화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이론과 연구보다 유사한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큰 지원군이 됩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여는 기획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각각의 지역과 기관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종 이들이 몸담고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점을 공유하며 서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획자들이 휴먼라이브러리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세션과 기획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수원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창립자의 강연을 들으며 휴먼라이브러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휴먼라이브러리가 어떠한 것인지 직접 체험하며, 이미 국내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한 사례를 학습하여 각자가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기획자들에게 어떠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③ 국내 휴먼라이브러리 사례 분석 및 방법론 제시

방방곡곡에 더 많은 휴먼라이브러리가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이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성과를 수집하여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국내 휴먼라이브러리 개최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40여 기관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경우도 있었지만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방법론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은 더욱 큼니다. 이런 사례들을 관리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최기관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례를 보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휴먼라이브러리는 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호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가가 나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장려하는 곳도 있고, 영국처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휴먼라이브러리가 널리 퍼지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 도서관, 민간단체 등이 쏠림 없이 두루두루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후발주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방법론이 생겨날 것이고 또 요구될 것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관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 ④ 편견을 주제로 한 학습도구 개발

휴먼라이브러리는 정해진 시공간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일시적이지만 기획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편견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동시에 헤아려봐야 합니다.

앞에서 한국인들이 편견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 알아본 바 있습니다. 한국인만의 특징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평소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했을 때 우선해야 할 일은 자신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편견을 직면하게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게 하는 ‘편견 워크숍’의 개발, 지역별, 대상별로 상식이란 이름으로 감춰진 편견을 모으는 ‘편견 사전’ 제작 등 새로운 시민교육을 위한 도구와 방법의 개발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입니다.

## ⑤ 해외 네트워크 사례 연구

휴먼라이브러리는 70여 개 국가에서 열리고 있으며, 국가별로 휴먼라이브러리 본부에서 선정한 파트너십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 당 한 개 기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 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희망제작소가 공식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고 자국 내 휴먼라이브러리를 지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들을 축적해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륙별, 국가별 특징을 분석해서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알아보고 국내에 알리는 것 또한 휴먼라이브러리를 확산하고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태국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로니 애버겔

### [예1]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2014 International Forum on Human Library Development for ASEAN>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사례를 나누며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한국 사례발표자로 참여하여, 이번 컨퍼런스 소개를 중심으로 한국 내 휴먼라이브러리의 운영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예2]

서호주 Curtin University에서 인권교육을 연구하는 Greg Watson은 <Being a Human Book: Defining identity, conscientization and rupturing prejudice>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연구대상으로서도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2) 사람책을 위한 과제

### ① 사람책 되기 훈련

휴먼라이브러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책입니다. 독자들과 만나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사람책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소개서는 사람책의 역할과 주의사항을 적는 데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책은 휴먼라이브러리의 핵심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소개서에는 사람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사람책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즉, 해당 편견 및 고정관념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인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각계각층의 다양한 독자들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 사람책은 안정적 성격의 소유자여야 한다. 해당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성찰적이며 성숙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 말하기 좋아하고 외향적이라고 해서 사람책이 되기에 적합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향의 소유자는 독자와 진지한 대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사람책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가 요청하는 시간 동안 책임감 있게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사람책을 주변에서 찾는 건 녹록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적은 사람은 주로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사람책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지역 기반의 기관과 단체들이 휴먼라이브러리를 여는 것을 권장한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신망 받고 오랜 교류를 통해 검증된 사람을 사람책으로 섭외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에 놓인 기관 및 단체이든 사람책을 섭외하는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람책을 양성하는 일 역시 필요합니다.

사람책을 섭외하기 전 인터뷰한 사람책 경험자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사람책으로 참여한 것이 자신에게도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편견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경청하고 이에 걸맞은 답변을 갖춰 대화하는 경험은, 독자 못지않게 사람책을 성장시킵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을 향한 편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책을 발굴하고 사람책을 키워내는 일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 ② 사람책 사이에 정보 및 경험 교류

기획자끼리의 정보와 경험 교류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책과 만나는 경험 역시 앞으로 필요해질 것입니다. 처음 사람책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겐 기획자가 궁금한 점을 답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지만, 이미 경험한 사람책의 경험담을 듣는 것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책들의 만남에서는 사람책 후배는 사람책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러 차례 휴먼라이브러리를 경험한 사람책은 기획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책이 모여 거주지역이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사이에 만남을 주선하듯, 휴먼라이브러리가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면 서로 다른 사람책들이 만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독자를 위한 과제

### ① 정기적 휴먼라이브러리



▲국내 운영된 바 있는 다양한 휴먼라이브러리 포스터

독자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가까운 휴먼라이브러리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번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에서 가장 빨리 사전신청이 마감된 건 세 가지 프로그램 중 ‘사람책과 대화’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성대하고 다채로운 휴먼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학교, 직장, 동네 등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장소에서 열리는 휴먼라이브러리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TV나 책을 통해 느낄 수 없는 대면만이 제공하는 대화의 힘을 강조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소규모 지역 단위와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예비독자들이 목말라하는 휴먼라이브러리의 참여기회는 조금 더 많은 지역 활동들이 휴먼라이브러리와 연계될 때 충족되리라 믿습니다.

#### (4) 2014년 희망제작소는

##### ① 휴먼라이브러리를 주제로 한 도서 발간

현재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에 비해 휴먼라이브러리 참가 기회를 비롯하여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엔 2009년 방송작가 출신의 김수정 씨가 영국 런던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접하고 쓴 《나는 런던에서 사람책을 읽는다》 이외에는 아직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한국어판 휴먼라이브러리 소개서를 번역·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희망제작소는 이번 컨퍼런스 운영경험을 살려 휴먼라이브러리 기획자를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도서를 출간하려 합니다. 또한 아직 휴먼라이브러리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다뤄보려 합니다.

##### ② 새로운 시민교육 방법론으로서 휴먼라이브러리

휴먼라이브러리는 지금까지 사업 다각화보다는 일회성 축제행사에서 정기적인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북유럽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여러 기관과 지역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다큐멘터리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휴먼라이브러리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처음부터 휴먼라이브러리를 우리의 시민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휴먼라이브러리라는 매개를 통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책을 양성하고, 기획자들이 휴먼라이브러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회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③ 일상의 편견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

휴먼라이브러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편견을 줄이는 것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 방법론을 통해 생생한 방식으로 편견을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견을 없애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사회적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편견의 유래와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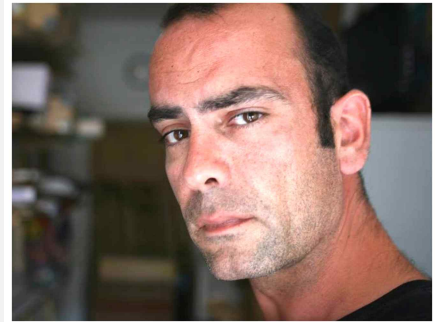
희망제작소는 이번 편견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주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내용을 들여다보며 이 편견이 어떤 계기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어떤 활동들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의 후원단체인 한겨레21과 공동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편견을 뽑아서 사람책과 독자, 전문가가 함께 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 특정 주제에 대한 편견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편견의 오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휴먼라이브러리의 발전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시급한 것도 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과제들이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편견을 마주하고자 마음 먹은 이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대화의 장인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가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조금씩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희망제작소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 위 원고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연재한 휴먼라이브러리 기획 기사를 고쳐 쓴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www.makehope.org](http://www.makehope.org)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 로니 애버겔 Ronni Abergel



덴마크 생. 코펜하겐에서 친구가 칼에 찔렸던 사건을 계기로 일찍부터 비폭력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1993년 가을 덴마크의 'Stop The Violence Movement'의 창립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젊은 세대의 비폭력운동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NGO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0년에 이 운동은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까지 그 움직임을 확대하게 되었다. 방법론과 콘셉트의 폭넓은 실행을 돕기 위하여 2008년 휴먼라이브러리 조직(Human Library Organization)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대표이력

- 1993-1996 'Stop The Violence' 공동설립자, 회계 담당, 대변인으로 활동
- 2002 'European Youth Against Violence Network', 'Nordic Expert Forum on Street Gangs and Racism' 공동설립자
- 2004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The Living Library Organisers' Guide> 공동저술
- 2008-2010 City of 코펜하겐 'Center for a Safer City' 컨설턴트, 심야 시간 폭력 예방 활동 관련 파트너십
- 2012- 코펜하겐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